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 과제

- ▶ 일 시: 2014년 4월 23일(수) 15:00~18:30
- ▶ 장 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004호(본원 세미나실)
- ▶ 주 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본 워크숍자료집은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고유과제인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임.

세부일정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 과제	
15:00~15:10	사 회 임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간	주 제 발 표
15:10~15:30	학교 입장에서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체험활동 쟁점 황은희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15:30~15:50	청소년기관 입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성과와 한계점 김주희 박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시간	사 례 발 표
15:50~16:10	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운영사례1 허은숙 (경기도 신길중학교)
16:10~16:30	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운영사례2 김동연 (서울시 잠실중학교)
16:30~16:40	휴 식
16:40~17:00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3 이은주 (역삼청소년수련관, 강남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7:00~17:20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4 박찬열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7:20~17:40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5 김기홍 (송파청소년수련관)
17:40~18:00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6 김지숙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
시간	종 합 토 론
18:00~18:30	김정주 (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소장) 김정숙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참가자 전원

목 차

주 제 발 표

1. 학교 입장에서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체험활동 쟁점 1
황은희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2. 청소년기관 입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성과와 한계점 19
김주희 박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사 례 발 표

3. 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운영사례1 39
허은숙 (경기도 신길중학교)
4. 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운영사례2 53
김동연 (서울시 잠실중학교)
5.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3 61
이은주 (역삼청소년수련관, 강남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6.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4 75
박찬열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7.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5 85
김기홍 (송파청소년수련관)
8.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6 93
김지숙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

토 론 문

- 자유학기제 운영과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례발표와 관련하여 107
김정숙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주제발표1

.....

학교 입장에서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체험활동 쟁점: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내용 및 현황

황은희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학교 입장에서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체험활동 쟁점: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체험활동의 내용 및 현황

황 은 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데 있어 교과 수업과 더불어 직·간접 체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들의 학생 체험활동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자유학기제의 개념 및 특징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의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은 <표 1>과 같이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분된다. 공통과정은 기존의 학교에서 가르치던 교과에 대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을 유연하게 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방법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자율과정은 진로탐색활동, 학생선택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의 네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개요

구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자율과정 (참여·활동형 프로그램 강화)	진로탐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학교수업에 진로교육 내용 반영, 진로와 연관된 통합교과 운영 등 · (상담·검사) 진로상담교사 우선 배치, 무료 진로검사, 진로상담 어플(4종)활용 등 · (체험) 2회 이상 전일제 체험, 학생이 계획하고 학교가 출석을 인정하는 자기주도 체험, 진로캠프, 사회인사의 특강 등 · (관리) 학생부에 진로희망 이유·비전 등도 기술, 학생의 상담·체험 결과를 누적하여 진로 포트폴리오 구성 등
	학생선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희망에 따른 동아리 개설 및 동아리 간 연계 활동 강화 · 청소년 단체(스카우트·RCY 등) 참여 권장 및 교육청의 지원 확대
	예술·체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의 문화예술체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예체능 교육 내실화 · 예체능과 국·영·수·사·과 교육간 융합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공통과정 (학교 교육방법의 혁신)	교수·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와 활동 유도: 토론, 실험, 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 · 과목 간 융합·연계 수업 · 협동교수-협력학습 강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 교과외 내용은 핵심 성취 기준 중심으로 구성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기말고사 실시하지 않음 :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상황을 학생부에 기록 · 학교별 학생 성취 결과 확인 방안 마련 : 결과는 고입 미반영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3. 5. 29), p.4.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 교육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공통과정 및 자율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학생 평가 방법의 변화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자율과정 프로그램 운영에서 두드러진다. 첫째,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은 공통과정(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기본교과)과 자율과정(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활동, 학생선택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교 마다 다르지만, 공통과정의 수업 시수는 주당 20~22시간 정도이며 대부분 오전에 진행된다. 자율과정은 주당 12~14시간 정도로 구성되며 대부분 오후시간과 중간·기말 고사

시간을 활용한 전일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는 2013~2014년 연구학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운영 형태이고,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율과정을 전일제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다(최상덕 외, 2014).

둘째, 공통과정 및 자율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학생의 흥미와 수요에 기반 한 참여형, 활동형 프로그램의 확대가 강조된다. 공통과정으로 편성되는 기본교과의 경우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벗어나 토론, 실험·실습, 체험, 교과 간 융합 수업 등의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과정은 진로탐색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 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활동마다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학생 평가에 있어 중간·기말 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학생들을 시험과 입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는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 학교별로 평가의 방법, 시기,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형성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중심의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프로그램 제공, 학생 수요에 기반 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학교 현장에서 예술·체육 교육이 내실화 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통과정의 교육과정의 편성, 교수·학습, 학생평가 및 자율과정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특징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체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해 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은 학교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 중인 연구학교에서는 교원연수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기본교과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자율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차원의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2) 자율과정의 운영 및 체험 인프라 구축

자유학기제의 자율과정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포함되게 된다. 자유학기제 자율과정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목적 및 성격, 학습내용, 운영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구성 영역

	진로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
목적 및 성격	학생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학생들 간의 자치적, 자율적 모임	학생에게 다양한 예술, 체육 활동 제공	학생에게 전문화된 프로그램 학습 기회 제공
학습내용	진로, 직업 관련 내용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음악, 미술, 체육 관련 내용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
운영방법	학생 선택	학생 선택	학생 선택	학생 선택
교수자	교사 및 외부 강사	학생중심의 운영, 교사는 지원자 역할	교사 및 외부 강사	교사 및 외부 강사

출처: 최상덕 외(2014)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 매뉴얼 p.27.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진로와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유학기제에서는 이를 더욱 유연하게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의 체험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과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운영에 있어 학생선택프로그램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나 강사가 주도하고,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그동안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직·간접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 '특별활동'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로 제7차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 2009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이르기까지 학교 내 비교과활동이 점점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교사나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의 부족 문제, 수업시수 조정용이나 자습시간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학생의 수요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문제, 교사의 업무 과다 문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부재, 외부

자원과의 연계 경험 부족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현철 외, 2013; 김현철 외 2010 재인용).

자유학기제 자율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비교과활동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 중 비교과활동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자원 부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부재, 자원 연계 경험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학기제 대상 학생들의 직·간접 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중앙정부 차원, 시·도교육청 차원, 교육지원청 차원, 학교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가 중앙부처·청, 교육기부 공공민간기관 등과 중앙단위에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광역 자치단체, 교육지원청-기초 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연계협력 체제를 형성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으며(교육부 보도자료, 2014. 2. 21), 2014년 3월 11일에 교육부와 8개 중앙행정 처·청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표 3>).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에서는 16개 전문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있다. 각각의 전문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협업기관들은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강사풀이나 학생 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시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역할은 <표 4>와 같다.

표 3 중앙행정의 자유학기제 인프라 제공 내용

기관명	인프라 제공 내용
법제처	청소년 법제관 사업
국가보훈처	청소년 독립군 체험캠프,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경찰청	경찰 직업 체험 및 안전법질서 교육 지원
소방방재청	미래 소방관 체험교실
문화재청	문화유산방문교육, 고고학체험교실
농촌진흥청	농촌교육농장, 소속기관 현장체험
산림청	청소년 인성교육 숲체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현장탐방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4. 3. 12) 재정리.

표 4 자유학기제 협업기관의 인프라 제공 내용

기관명	인프라 제공 내용(예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클, 수상스포츠, 골프 등 체육 프로그램 및 체육공원, 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 제공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성교육, 교육기부 등의 사업으로 주요 교과활동 연계운영 프로그램 제공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학·관·연 상호 긴밀한 연계를 통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과 안정적 정착 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평가에 관한 연구 수행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 문화 프로그램 예술교육 강사 파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진로프로그램 개발, 진로와 직업 관련 스마트북 제작 및 제공, 진로 전문 인력 지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유학기제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동아리, 국제교류, 자치활동, 문화활동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강사 및 전국 수련시설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별 거점에 콘텐츠 제작 체험 인프라 구축, 드라마, 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제작분야 강사 파견 및 산업현장체험 제공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관련 교사, 학생 연수 개설 및 지원, NIE교실 등 미디어 관련 전문 강사 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직업 진로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보급, 교육멘토링 및 직업체험학교 제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디어활용교육, 진로교육,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교사 및 청소년 대상 상담, 자살예방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학습클리닉 등
한국고용정보원	커리어액션, 직업체험 시설 활용 청소년 진로탐색 콘텐츠 제공 등
한국잡월드	직업탐색 기회 제공, 사회학습 종합 인프라 제공, 건전한 직업관 형성 지원 등
한국폴리텍대학	학생들에게 직업훈련 및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체계적 진로탐색 기회 제공, 체험·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자료집, pp.58-59.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MOU는 체결하지 않은 협업기관임

3) 자유학기제와 연구학교의 학생 체험활동 사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통해 다양한 학생 체험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자유학기제를 처음 시행한 연구학교들의 학생 체험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여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의 연계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들의 체험인프라 활용은 크게 교육 전반과 관련된 체험활동, 교과 연계 체험활동, 직업·진로 체험활동, 동아리 연계 체험활동, 문화·예술 체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학교별 운영 모형(진로탐색활동 모형, 학생 선택 프로그램 모형, 동아리활동 모형, 예술·체육활동 모형, 혼합 모형)에 따라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인프라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직업·진로 체험을 위한 인프라 활용이 많았다(최상덕, 2013).

표 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체험인프라 활용 유형

유형	설명
교육전반	교과와 관련된 체험활동 실시, 교과 연계 체험활동, 직업체험, 문화예술 체험을 모두 혼합한 형태
교과 연계 체험활동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등의 교과와 관련하여 각 과목마다 관련 체험활동을 실시
직업체험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특화되어 있는 직업 체험을 실시
동아리 연계 체험활동	학생들이 속한 동아리 차원에서 동아리 특성에 맞게 체험활동을 실시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역사회의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하여 교양 활동을 실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자료집, p.59.

첫째, 교육 전반과 관련된 인프라 활용은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체험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전체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교과 연계 체험활동은 기본교과의 운영에서 체험활동 활성화, 자율과정과 연계된 기본교과의 지도를 위해 인프라를 활용한 경우이다. 2013년 연구학교의 성과보고서 분석 결과 서울 동작중학교가 교과별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학 관련 체험을 위해 증권거래소, 국정원 안보전시관, 통계원,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의료보험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방문하고, 과학과 관련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사회와 관련하여 인재능력개

발전, 소방학교를 방문하여 교과와 연계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의 연구학교에서 교과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성과보고서에 교과별로 분류하여 체험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셋째, 직업체험은 대부분의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진로직업센터를 활용하는 형태, 잡월드와 같은 체험 기관을 활용하는 형태,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회사, 상점 등을 활용하는 형태, 부모님 직장과 연계하여 체험하는 형태 등으로 다양하였다.

표 6 자유학기제 직업 체험활동 사례

구분	학교	체험활동 인프라
진로직업센터 및 진로체험기관 활용	거원중학교, 동변중학교, 외삼중학교, 청북중학교, 태안여중, 김제중앙중학교 등	강동진로직업센터(상상팡팡), 한국잡월드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함태중학교	강원관광대학교(상담, 직업체험), 태백 장서어 중앙병원(의료 진로, 직업), 태백시청, 연세대 원주캠퍼스(창의체험, 방과후 교육), 태백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태백경찰서, 태백농협중앙회,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생명의 숲, 태백청소년수련시설, 태백관광개발공사, 태백지역자활센터, 태백 오투리조트, 태백 선탄 박물관,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협의회태백지구, 태백수지원공사, 태백산도립공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유리공예, 커피박물관, 태백레이싱파크, 태백 너와마을, 태백 교육도서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강원소방학교, 태백365 Safety Town, 삼척 어촌 체험마을
부모님 직장 연계	연암중학교	ART요리학원, SBS미용학원, 울산MBC방송국, 로보로보 사이언스 클럽, 울산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 중부 경찰서, 현대자동차, 환경미화원, 암웨이, 화봉성당, 분스킨케어, 미용실, 대일산업, 수학학원, 웰스정수기, 청호나이스, 우리 소방, 봉대박스스파게티, 평화산업, 화봉고등학교 조리실, 대성전기공업, 동광택시, 무릉고등학교행정실, 해바라기 어린이집, 하늘아이지역아동센터, 가족핸들만들기 부업, 연암건축자재백화점, 등산복판매장,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화봉어린이집, 울산지방경찰청,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춘해보건대학, 울산박물관, 갤러리교원, 외고산 옹기마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자료집에서 재정리.

넷째, 동아리 연계 체험활동의 경우 동아리별로 동아리의 특성에 맞는 체험처를 찾아 체험하는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42개 연구학교 중 성과보고서에 동아리 연계 체험활동을 소개한 학교는 <표 7>에 제시한 여섯 개 학교가 있었다.

표 7 자유학기제 동아리 연계 체험활동 사례

학교	동아리 관련 체험활동 인프라
용수중학교	부산폴리텍대학,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기상청, 동서대학교, 김해공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대명과, 부산동물메디컬센터, 쿠쿠 전자 공장, 한국은행부산본부, 한국거래소
천내중학교	달구벌종합복지관, 달성현풍석빙고, 계명문화대학, 두류도서관, 구미경운대학교, 마비정벽화마을, 대구골목투어, 국립대구과학관, 교육과학연구원, 애망원, 논공카톨릭치매센터
연암중학교	갤러리아,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교육청, 춘해보건대학, 울산MBC,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부산은행, 순천만 갈대숲
연무중학교	전봉준 생가, 수원 화성, 서울 청계천, 대학로, 은진향교, 견훤왕릉
조치원여자중학교	한국만화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벨리코리아학원, 명지대학교 음악학부, 코엑스, 소마미술관, 남양주종합촬영소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서귀포 테니스장, 서귀포학생문화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자료집에서 재정리.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체험활동은 지역사회의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하는 형태와 중앙정부 차원의 협업기관 인프라를 활용하는 유형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전체적인 문화체험으로 체험이 이루어진 경우와,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위주의 소규모 활동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학교별 운영 모형에 의한 분류 외에 청소년활동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지역의 청소년 활동 관련 기관의 활용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를 연구학교의 성과보고서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총 42개 연구학교 중 성과보고서에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의 인프라 활용을 제시한 학교는 15개교가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는 <표 8>과 같다. 이들 학교 중 중앙 단위의 협업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활용한 학교는 태안여자중학교와 북삼중학교 2개교 였으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와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를 이용한 학교는 선운중학교와 김제중앙중학교의 2개교였다. 이밖에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는 부평동중학교, 잠실중학교, 언양중학교, 함태중학교, 태안여자중학교로 총 4개교였으며, 그 밖의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 등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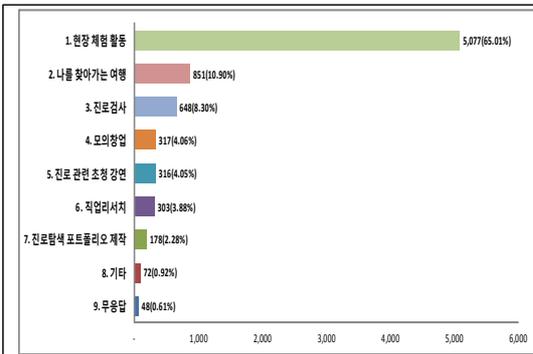
표 8 자유학기제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활용 사례

학교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잠실중학교(서울)	송파청소년수련관
동변중학교(대구)	북구청소년문화회관,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부평동중학교(인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회덕중학교(대전)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언양중학교(울산)	언양청소년수련관
연암중학교(울산)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함태중학교(강원)	태백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태백청소년수련관
서면중학교(충남)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태안여자중학교(충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태안군청소년수련원
선운중학교(광주)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김제중앙중학교(전북)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김제교육문화회관
화순동면중학교(전남)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
순천이수중학교(전남)	순천청소년문화센터
문경서중학교(경북)	문경시민문화회관, 경북학생문화회관
복삼중학교(경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귀중앙여자중학교(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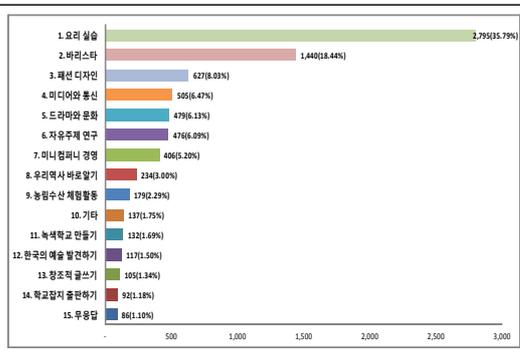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자료집에서 재정리.

4)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를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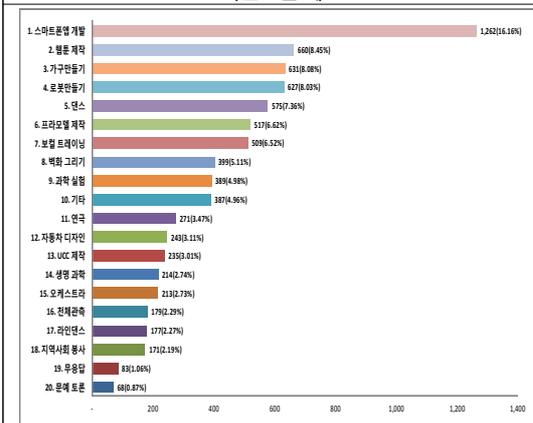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학생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수업방식은 체험중심수업(65.4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협동학습(11.01%), 강의식 수업(10.29%), 프로젝트 학습(5.95%), 토론식 수업(5.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에 중점적으로 시행되기를 원하는 자율과정으로는 학생 선택프로그램(32.36%)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체육(31.50%), 동아리활동(23.75%), 진로탐색(1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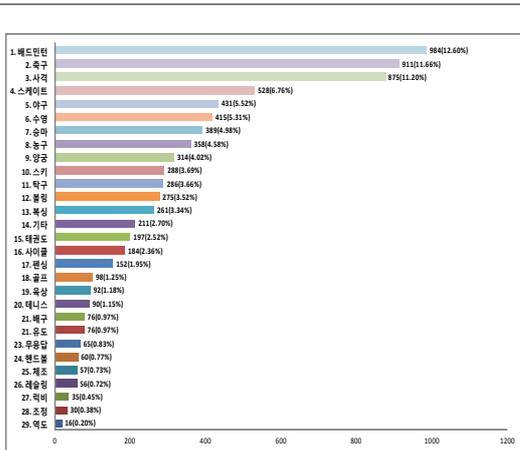
〈진로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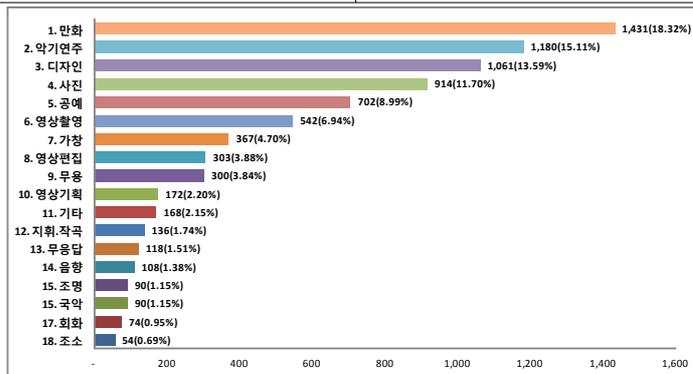
〈학생선택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체육활동〉



〈예술활동〉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학생 수요조사 결과, pp.7-15.

[그림 1]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학생 수요조사 결과

또한 각각의 자율과정별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그림 1]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다양한 비교과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체험중심의 수업 방식을 가장 선호하며,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선택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및 체육 활동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지연(2013)은 성공적인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향으로 교과서와 교실 중심의 학습 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지역사회와 삶의 현장 속 학습 환경 조성, 학교 밖 학부모, 전문 직업인, 은퇴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인력의 적극 활용 및 확대를 제안하며 자유학기제의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기관 중 현재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자율과정 시행에 따른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은 수련시설의 형태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시군구 단위에는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특화시설이 있으며, 읍면동 단위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 당일 체험활동 등이 가능하다(유진이, 2012).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백서(2013)에 의하면 <표 9>에 제시된 것과 같이 2011년 기준 738개소, 2012년 기준 753개소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2012년 620만명의 학생 청소년 기준으로 볼 때, 23%를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유진이, 2012). 실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도 42개교 중 15개교만이 청소년관련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다. 실제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인구 대비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2013년 현재 42개교 수준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 인프라를 활용율이 저조한 것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 및 청소년활동과의 연계방안 준비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 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 중 중학생의 흥미와 수요에 기반 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인프라 연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자유학기제 학교와 청소년활동 기관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 기관에 대한 홍보와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9 전국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3)

구분	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총계	계	753	181	219	173	45	127	8
	공공	485	177	215	42	27	16	8
	민간	268	4	4	131	18	111	0
서울	61	33	17	2	0	4	5	
부산	24	8	9	4	2	1	0	
대구	13	5	6	1	0	1	0	
인천	26	8	6	5	4	3	0	
광주	11	5	4	1	0	1	0	
대전	13	4	7	1	0	1	0	
울산	9	1	6	2	0	0	0	
세종	1	0	1	0	0	0	0	
경기	144	28	41	47	4	23	1	
강원	81	14	27	16	6	17	1	
충북	46	9	9	15	2	11	0	
충남	49	9	10	14	3	13	0	
전북	54	11	20	13	3	6	1	
전남	44	13	11	8	7	5	0	
경북	63	16	11	14	7	15	0	
경남	71	14	15	25	4	13	0	
제주	43	3	19	5	3	13	0	

주: 국립청소년시설(3개)-중앙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평창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라남도 고흥군) 포함. '13. 7월 개원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전라북도 김제시)는 상기통계 미포함.
출처: 여성가족부(2013). 청소년백서, pp. 403-404.

두 기관의 서로의 요구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는 학교 주변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및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청소년수련관 담당자 및 청소년지도사들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 자율과정 프로그램 등을 이해하고 자유학기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국에는 181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있어 인근 학교의 자율과정 운영을 상당부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캠프, 청소년체험활동 이외에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희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설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스포츠활동 등은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예술·체육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고,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것들이 대부분으로,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연계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사들과 청소년수련관 지도사들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좋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실제 인근학교 학생들의 희망과 일치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간 및 운영방안과 맞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지역사회기관의 협조가 중요하지만, 청소년체험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였으며, 연계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연간계획의 수립 및 업무협의회 개최 등의 최소 범위로만 이루어진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김현철 외, 2012; 성은모, 2013 재인용). 지역 청소년수련관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소재한 학교들이 와서 활동하게 되는 만큼, 인근 학교 교사들과 청소년수련관 담당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체험활동 인프라 발굴 및 체험활동 시행을 위한 자유학기제 전담 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역사회의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2013 연구학교의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일부 원거리에 있는 체험활동처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인근 지역사회의 관공서, 대학, 박물관, 기업체 등의 체험 인프라 자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원거리 체험으로 인한 예산 부족 및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체험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각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연구학교의 컨설팅 결과 상당수의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인프라 발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을 도와 줄 전담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를 운영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사례에서도 성공적인 TY 프로그램의 계획 및 적용을 위해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이기봉, 2013 재인용). 교사들이 직접 체험처 발굴 및 협약 체결 등을 진행하는 노력을 지역 전담 코디네이터가 지원한다면, 교사들이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디네이터 양성에 있어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경험이 많은 청소년 활동 관련 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된다면 전문성 있는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 코디네이터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이기봉, 2013).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전반의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경기 신길중학교에서는 학교 인근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청, 연구원, 복지관, 음식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자유학기제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학부모 지원단 구축 및 학부모 일터 직업 체험 등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부모 모두가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유학기제를 취지에 맞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유학기제 중요성 인식 및 협력적인 문화 조성을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연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차원의 협업이 지역차원의 협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부처간,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체험 인프라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주로 활용하게 되는 곳은 중앙기관보다는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산하 기관들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중앙기관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연계적 협력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국가는 2개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시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씩 설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유진이, 2012). 현재 자유학기제 협업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소속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이외에도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이 400개소(<표 9> 참조)가 운영되고 있다. 국립 시설의 경우 자유학기제의 경우 자유학기제 협업기관 간의 월 1회 운영되는 정례회의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유학기제 학교를 위한 인프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산하 기관의 경우 중앙기관보다 정보가 부족하여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앙기관과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며, 또한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업무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있어 청소년 활동 유관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청소년활동 기관 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의 부족, 대화와 소통의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는 학교대로 자유학기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소년활동 기관은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적 홍보, 자유학기제 학교와 청소년 활동 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보도자료(2013. 5. 29).
- 교육부 (2014). 자유학기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선도교육지원청 선정·운영 보도자료 (2014. 2. 21).
- 교육부 (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구축 위한 업무협약 보도자료(2014. 3. 12).
- 김현철, 윤혜순 (2013).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학교 내외적 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5-33.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연구보고 10-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 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이기봉 (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외국 사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세미나 자료집(13-S05):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 외국사례와 방향 성 모색**. 1-20.
- 이지연 (2013).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진로탐색 중심 접근.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제1회 진로교육포럼 자료집: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방향과 과제**. 17-52.
- 유진이 (2012). 청소년수련시설 현황분석 및 건립 기본방향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 10(1). 27-36.
- 최상덕 (2013). 자유학기 추진 현황 및 과제: 협업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세미나 자료집(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5.
- 최상덕, 신철균, 황은희, 이상은, 김은영 (2014).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 매뉴얼 (CRM 2014-5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13).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학생 수요조사 결과(CRM 2013-85)**.
- 한국교육개발원 (2013).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 자료집(CRM 2013-154)**.

주제발표2

.....

청소년기관 입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성과와 한계점

김주희 박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기관 입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성과와 한계점¹⁾

김주희 박사(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1. 들어가며

자유학기제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반면, 자유학기제의 안착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도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려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과 연계하는 학교 밖 체험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시설에서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정책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고찰해 보고,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체험활동 활성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정책적 연계 실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한 일본의 「종합적인 학습시간」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변화가 단순히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과 역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현철·최창욱·민경석, 2010).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2012)는 교육과학부와 성공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2010. 5.)하고 청소년시설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발굴 확산할 수 있도록

1) 김주희(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팀장)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워크숍자료집(14-S14)의 발표문을 (PDF 파일 공개용)으로 발췌하여 출처 등을 수정·보완하였다.

청소년활동 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정책적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1)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 인프라

학교 교육과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자리 잡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교 밖이 원활히 연계·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는 학교 교육정책과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정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밀접하게 협력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청소년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기회로 적극 참여하고자 교과부와 창의체험자원지도(CRM, Creative Resources Map) 및 입학사정관제 등의 협력 강화는 중앙차원에서 지속적 추진하였다. 청소년 관계자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해 증진과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청소년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체질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전략사업을 전개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청소년체험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체계 구축하여 교과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하고 교과부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추진기관간 협약(2011.3.) 추진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과학창의재단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동기획 및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지역실무협의회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 및 센터 평가지표 제시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지역사회 학교연계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및 운영 지원, 청소년활동 인프라 활용확대를 위한 설명회 및 홍보사업을 펼쳤다. 그 외 국립청소년수련시설(중앙·평창·고흥)을 활용하여 봉사 및 특정 테마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및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운영매뉴얼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학교연계 컨설팅,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체험자원지도(CRM)에 연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자원지도(YRM, Youth Activity Resource Map,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 단체 현황 등)를 보강하여 지방센터와 자원지도 관리체계를 운영하였다.

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지역자원 특히,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체험활동 인프라(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등)를 구축운영 중이며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가능성에 따라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인프라와 학교를 성공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는 지역사회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운영모델을 시범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운영사례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2011년 2개 지역의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개발된 운영모델을 전국적인 정책사업에 적용·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실무적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모형개발 연구」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창의적 체험활동 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 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과 운영모형을 제공하는 전략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시범지역 및 기관은 지자체 의지가 있고, 자원 등 역량이 안정된 지역을 기반으로 선정하여 노원구 및 수원시 초중고 각 1개교(총 6개교) 2천명이 참여하였다.

기존 청소년 시설에서 제공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활동영역별로 되어 있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어 학교의 관심 유도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원(지자체와 교육청, 프로그램 개발기관, 청소년현장, 학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통성과 연계성을 확보한 통합된 프로그램과 운영체계 모델을 구축하고, 시범운영한 사례를 보급·확산시키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젝트로 실행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대표 주제(예: 환경체험 등)를 먼저 결정한 후 교급별, 영역별 활동을 연계·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기존 개별적 체험활동의 단순투입 형태에서 계통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활동 영역간 통합연계모형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예로 동아리를 기본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진로활동으로 연결되어 미래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일본 케센누마시의 환경체험활동에서 계통성을 확보한 교급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적용은 대표적인 해외 우수 사례라고 볼 수 있다(김현철·최창욱·민경석,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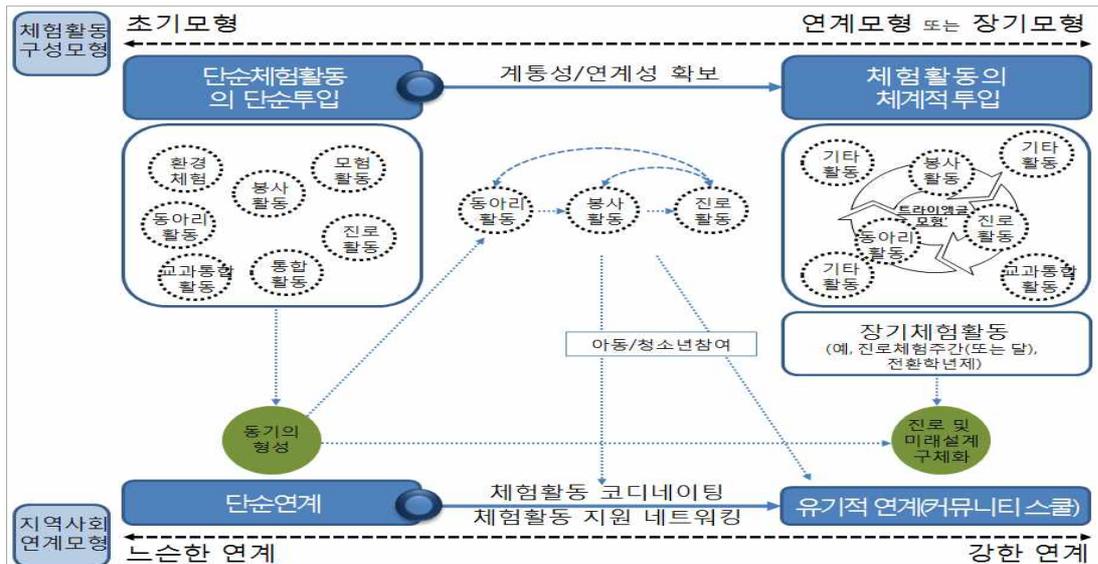


원자료 : 気仙沼市教育委員会(2009). Mobius for sustainability(2002→2009).

출처: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p.50.

[그림 1] 일본 케센누마시의 계통적 초중고 환경교육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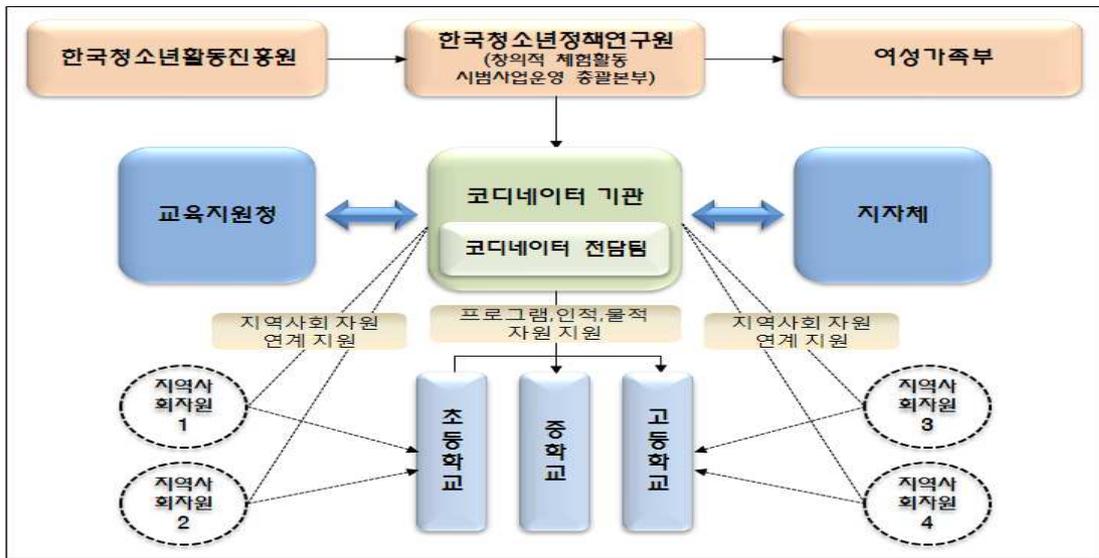
이를 토대로 장기적 체험활동, 진로 및 미래설계의 구체화가 가능한 통합형 체험활동의 체계적 투입(단순통합→트라이앵글모델)으로 지역사회의 새로운 유기적 연계모형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은 계통성과 지역자원 및 활동영역과 통합·연계성을 가지고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운영체계 구축과 함께 학교와 지역코디네이터 담당기관이 연간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출처: 이기봉 · 김현철 · 윤혜순 ·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p.22.

[그림 2] 창의적 체험활동의 가설적 운영모형

여성가족부(2013)는 2012년 개발된 지역사회운영모형을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참여기관의 컨설팅과 담당인력 지도, 지역모델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과 각 학교(교육지원청)와 연계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3).



출처: 김현철·황여정·민경석·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II. p.7.

[그림 3]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모형

시도별 각 6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총 960백만원의 사업예산으로 시도별 각 2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선정하여 1개 수련시설에서 초·중·고 총 3개 학교를 기준으로 담당하여, 전국적으로 총 44개 수련시설과 100개 학교가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는데 참여하였다(여성가족부, 2012). 본 시범사업은 2013년에 총 42개 수련시설과 확대된 191개의 초·중·고교가 참여하면서 활발한 연계성과를 이루어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이로써 2011년에 개발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더욱 개선·발전시키며, 시범기관(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의 학교, 지자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첫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기관을 코디네이터기관으로 하여 추진체계 마련과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자원 발굴 및 자원집(DB) 개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육 및 연수를 통한 담당자들의 코디네이팅 기능 강화와 청소년 체험활동 및 지역 네트워크 관련 연구모임을 운영 하며, 청소년 체험활동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강조를 두었다. 이러한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의 추진체계와 추진기관 별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



출처: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 사업지침. 미간행물. p.3.

[그림 4]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사업(지역사회운영모델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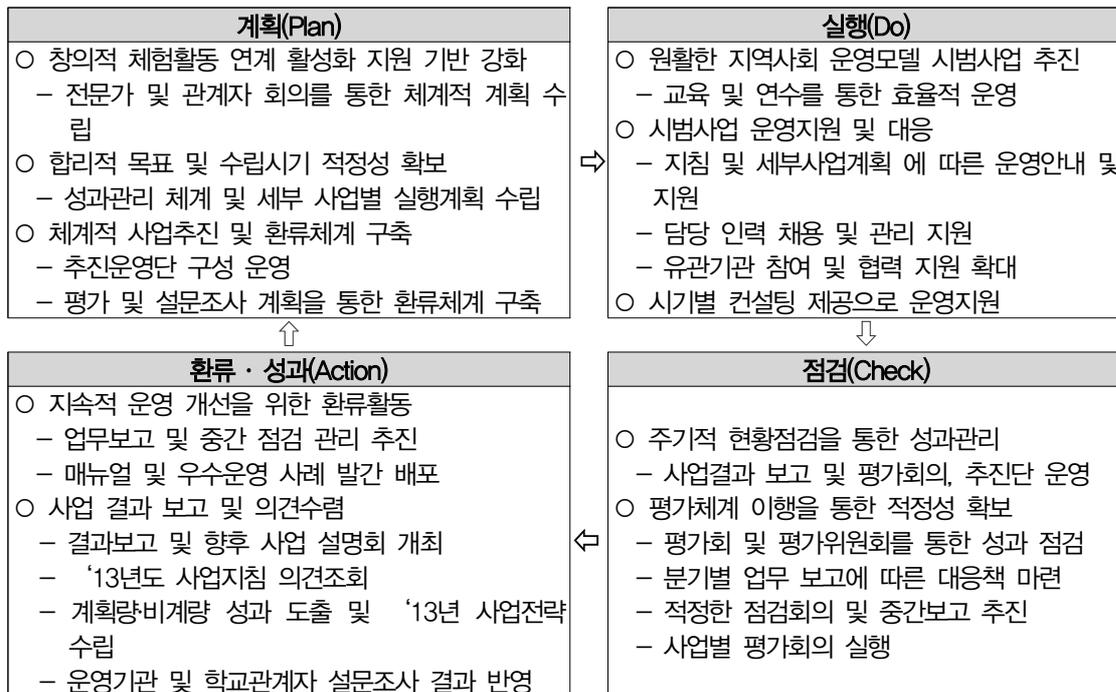
표 1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사업(지역사회운영모델사업) 추진체계별 역할

기 관	역 할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총괄 ○사업지침 수립 및 시범사업 기관 결정
운영지원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주관	○사업시행 총괄 ○사전 워크숍 및 결과보고회 주관 ○운영기관 및 참여학교 교육지도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과 협약 체결 - 운영기관, 참여학교도 같이 협약 체결 ○사업 운영관련 행재정 지원 및 감독 ○운영기관과 참여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의 지원
사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해당 지역 운영기관 모니터링 및 컨설팅·평가(상반기, 하반기), 중간보고회 개최 ○사업에 참여할 전문인력 지정 -센터 내에서 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 경력이 있는 인력 지정, 국가가 배치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사는 타 업무 인력으로 활용 가능 ○컨설팅 및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3월, 10월)
시범기관 (코디네이터기관)	○사업 추진체제(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참여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진행 ○중간보고(7월) 및 최종 결과(12월) 보고 - 여성가족부(지자체 경우),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제출
참여학교	○차년도 연간교육계획 수립 시 운영기관(코디기관)과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에 대한 협의 및 반영 ○운영기관(코디기관)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출처: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 사업지침. 미간행물. p.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2)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운영기관 컨설팅 및 교육연수 제공, 시범운영기관(청소년수련시설) 역량 강화를 위해 [그림 5]와 같은 절차로 관리·운영하였다.



[그림 5] 사업 운영관리 절차

3. 창의적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 성과와 한계점

1) 창의적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성과

여성가족부(2012)에 의하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소년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운영 모델 확산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량 강화와 청소년수련시설 활용도 제고로 전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전국 시범사업에 이르는 3년간의 프로젝트가 운영되었다. 아쉽게도 2014년도 지역사회 운영모델사업의 정책적 지원이 중단되면서 3년간 개발 적용되어 온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사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원이 아직 전국적으로 안정적 정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여 자생적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과는 분명 여러 운영사례를 통해 현장의 변화와 지역 네트워크의 강화 및 학교정책과 협력 증진, 시설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2012년도 사업운영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이 학교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역할로 인식 전환과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이용 및 활용도가 증대되었다. 특히 충남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기반 구축에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청소년활동 인프라(프로그램, 지도자, 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내 시범사업 연계 시범학교 지정 요청 증대로 경쟁력이 확보되고 '13년부터 시범학교를 공모형태로 선정하는 운영기관이 많아졌다. 사례로 '12년 양산시 청소년회관이 공모를 통한 시범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울산동구청소년문화의집,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경기연천군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학교연계 요청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울산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자원 현황 발굴 및 DB구축(YRM)이 증가하고,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대덕구청소년수련관 등은 학교 및 지역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유기적 연계 협력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44개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100개 학교가 참여하면서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 성공적 사업 추진은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주요성과로 채택되어 사업추진 결과의 객관적 적정성을 확보하였다

(여성가족부, 2012).

사업평가를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의 운영사례를 통한 시범사업 전후의 효과분석을 프로그램(유형, 내용, 특화프로그램), 지역사회(네트워크), 시설(기관역할, 시설이용률), 학교(연계), 지도자(지도역량) 측면으로 제시하고 대표적인 성패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2 운영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효과 분석

구 분		시범사업 전	시범사업 후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일회성 프로그램 참여 - 고급·학년 수준별 차별화된 학기(학년)단위 프로그램 미흡 - 시설 보유 프로그램 제공(공급자 중심)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교육과정 협의를 통해 학년 수준별 학기(학년)단위 프로그램 개발 예)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 고급별 계통성을 확보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 학교 요구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수요자 중심) 예) 인천 동구서구청소년수련관, 충남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전남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요구 증대로 질적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체험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률 및 만족도 증가 예) 충남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특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기관의 특화프로그램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프로그램 개발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예) 전국 44개 시범사업 운영기관 추진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자원발굴 저조, 네트워크 필요성 인지 부족 - 청소년체험활동의 자원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 증가 예)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대덕구청소년수련관,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경기연천군청소년수련관, 대구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자원 발굴 및 DB 구축 증가 예) 대전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울산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학교	학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관심과 연계 미흡 ※ 외부기관 및 시설과 연계 경험 5점 만점에 평균 2.26이하(김현철 외,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요청 증대 예) 울산 동구청소년문화의집, 울산남목청소년문화의집,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경기연천군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학교의 변화 및 연계 증대 효과 - 경쟁력 강화로 공모를 통한 시범학교 선정사례 도출 예) 양산시청소년회관 연계 초중고교 공모 선정

구 분		시범사업 전	시범사업 후
지 도 자	지 도 자 역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외부 전문지도력 요청 증대 ※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자체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초중고 교사 불과 3.5%, 동아리활동(35.1%)과 진로활동(39.0%)을 선호하나, 학교인력만으로 운영하기 가장 취약한 영역임(김현철 외,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및 학교로 활동범위 확대로 역량 제고 - 지역코디네이팅, 동아리 및 진로활동 전문 지도역량 연수 및 교육 추진 예) 전문연수를 통한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시 설	기 관 역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자원만으로 학교 프로그램 연계 -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기능 미흡 - 지역사회자원 학교 연계 코디네이터 기능 인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내 전담인력 배치 학교 연계 효율성 증대 예)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학교협력관' 직제 생성, 44개 시범운영기관의 전담지도자 배치 - 지역사회 자원 총괄 등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 예) 광주청소년문화의집 '코디네이터' 직제 생성, 전남여수시청소년수련관, 인천서구청청소년수련관, 울산문수청소년문화의집 - 교육기부자 양성 및 참여기관 발굴, 모임 운영 지원 예) 빛고을청소년문화의집, 인천서구청청소년수련관 - 시도활동진흥센터와 연계 추진하여 YRM 자원 확대 등 시너지 효과 예) 대덕구청청소년수련관, 빛고을 청소년문화의집, 울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6개기관)
	시 설 이 용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자가 강사로 학교로 찾아가 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및 자율활동으로 수업(낮)시간에 청소년시설 이용률 증대 예) 노원구청청소년수련관, 역삼구청청소년수련관,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사업 결과보고서. 미간행물, pp.46-48.

표 3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성패요인 분석**

성공요인	실패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모임 활성화 • 네트워크(협력 기관) 다변화 긴밀화 중심화 • 학교 요구조사후 프로그램 연계 • 특화, 통합 프로그램 협력 개발 • 지역자원 발굴 및 DB 구축 증가 • 학교와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 • 지도자 코디네이팅 전문성 및 역량 • 기관 차원 운영 지원 •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이해부족 • 지역내 자원부족 • 네트워크 중요성 인식 부족 • 네트워크 활용성 부족 • 전문성 역량 부족 • 잦은 인력 교체 • 코디기관으로서 정체성 미흡 • 학교 요구에 단순 지원(프로그램,장소,지도자) • 학교와 기관 매개자 및 대행자 역할 (방과후활동위주 강사관리)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연수 결과보고서. 미간행물. p.45.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는 지역사회자원 활용과 지역사회 협조가 중요사안으로 현 청소년활동 지원에 지역사회 인식 부족, 인프라 부족, 체계적 지원 부족함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객관적인 시범사업 외부평가로 김현철 외(2012)은 시범운영기관 및 시범학교 관계자 37명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코디기관과 시범학교의 협의회 운영은 평균 2.3회 개최로 만족도 90.2%를 나타냈으며, 교사와의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코디네이터 역량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하였다. 또한 코디기관 당 평균 9개 지역자원(기관)과 인근 초중고 70%의 학교가 참여하며,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효과, 필요성에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연계협력기관 유형중 청소년수련관이 73.2%로 가장 높았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외부 지역자원연계 필요성에 93.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학교 현장의 코디네이터 수요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성공요인으로 좋은 프로그램, 지역사회자원 코디네이터, 예산지원 순으로 응답함을 알 수 있었다.

2013년도는 특히 전년도에 비해 지역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정책적 참여와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 강화로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4개의 청소년시설과 191개의 초중고교로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업 확산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창의적 체험활동 코디네이터 역할 및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3).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이용 및 활용도를 증대하였는데 대표적인

우수사례 3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은 지역자원 참여기관의 수를 30여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2배로 확대하고, 공모형으로 참여 학교를 선정하여 교사와의 연구모임, 간담회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역 해양프로그램을 진로와 연계하여 해양과학자 등 진로분야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해양기관과의 협의회 운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재능기부 고등학교 동아리가 초등생 돌봄교실을 운영지원하는 사례의 호응이 높았으며, 청소년 분야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표의 계량화로 모델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기관수 대비 참여 학교 수 비율, 지역기관 및 학교의 예산부담 비율을 점차 늘려 자립 형태의 운영모델을 만들어 갔다. 둘째,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은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으로 객관적 사업성과 측정 및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날을 지정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동아리활동을 청소년문화존 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신뢰와 인지도 향상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러한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운영기관이 2년차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사업을 추진(42개 기관, 191개 학교)하면서 점차 지역내 사업 효과 및 인지도가 향상되고 참여학교 공모형 선정추진과 학교 및 지역사회 신뢰도 향상,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2011년)과 시범사업(2012년, 44개 수련시설, 100개 학교), 본 사업(2013년, 16개 시도센터, 42개 수련시설, 191개 학교) 추진 확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서 지자체, 청소년시설, 학교가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모델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과 운영기관(청소년수련시설)의 유기적 연계·협업으로 2014년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업예산을 별도 확보(대구광역시 등)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 등 교육시설 위탁 운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즉청소년시설이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착 및 체험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창의적 체험활동과 지역사회 체험활동 연계 한계점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자원 및 학교 연계 추진 정도와 수준에 있어 지역별 큰 편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지역의 청소년시설은 코디네이팅 역할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배치가 미흡하였고, 학교 관계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사업이해와 인식 부족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실질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기관 및 담당자의 이직 및 변경, 부재사정으로 일부 운영기관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여, 청소년지도사의 이직률을 줄이는 지도사의 역할과 전문성 등 위상 강화 등 근무조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강사 지도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현실적 예산 지원과 사전 프로그램 요구조사, 지역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보완과 운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격, 2011).

더 나아가 교육청, 지자체 업무협약 추진 등 지원을 위한 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참가 만족도·효과성 설문 문항, 평가체계(성과달성목표 등)는 필히 개발 연구되어 사업 확대의 객관적 근거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코디네이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 이해, 자원확보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 지속적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역자원 및 학교연계 우수사례와 정보가 온 오프라인으로 상시 공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과목표에 전담인력 구성 및 시설이용 증가율 등이 사업결과 보고 시 반영되고,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과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사업운영체계 우수 및 미흡기관 추적 모니터링 실시로 우수사례의 정책적 매체 홍보 및 인센티브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격, 2011).

지역모델사업 운영지원으로 청소년시설이 지역사회 운영모델 확산 및 정착화에 중추적 역할로 참여협력기관 발굴 및 확대,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연계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에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하였다. 즉, 청소년수련시설(42개)과 학교(191개) 연계로 지역 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체험활동 기회 확대'라는 상위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16개 시도별 42개 운영기관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근거로 향후 시·군·구까지 지역모델 운영사업이 점층적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 긴밀한 부처간 정책적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지자체 및 교육청, 시도센터, 청소년시설, 학교,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 향후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처 간 연계·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 및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14년도 연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보조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지역사회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지원 사업이 일부 중단되는 상황에 처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요구 증대와 함께

자유학기제와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청소년시설이 지역내 안정적 운영 체계와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성장시스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

4. 자유학기제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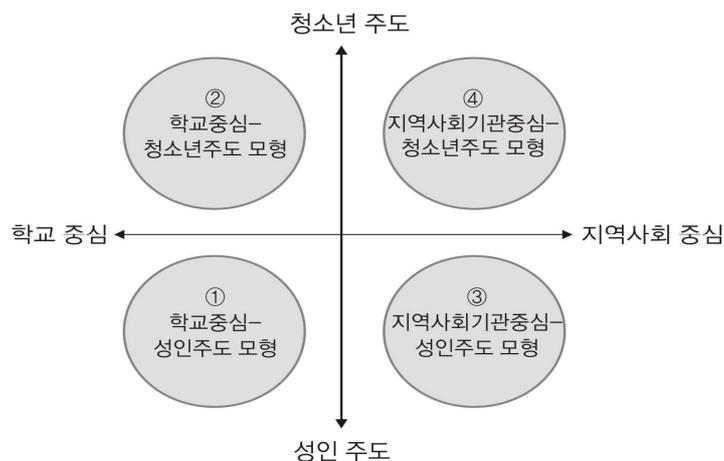
청소년시설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는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활동과 학교연계 협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시설은 대체적으로 학교 연계 사업으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도 협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는 자유학기제와 어떻게 연계 협력할 수 있을지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두 교육정책은 학교스포츠활동 강화, 동아리활동, 문화예술활동 강화 등 청소년체험활동을 강조하는데 양적인 팽창 외 질적인 변화가 이제는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체험활동 운영하기 위해 중요 고려사항으로 체험활동을 통해 흥미·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과/비교과 통합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능력을 갖추고 능동적인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지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는 프로그램 콘텐츠 기술자가 아닌 청소년 자기주도적 참여지도와 다양한 콘텐츠 융합 통합 기술, 네트워크 통해 가능하도록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기관은 네트워크에 중요 역할로 학교와 지역사회 변화에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기관·시설·단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청소년활동 대처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연계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자원과 교류, 강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중심 역할로 단순히 시설을 찾아오는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운영자, 강사 연계형 공적 서비스는 한계에 도달했다. 청소년지도자 활동 영역 전문성, 교사와 연구모임, 지역 전문 인력 교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를 강조하여 협업 활동 강화, 및 컨설팅 역량 강화로 청소년기관의 필요성 인식과 지역사회 내 존재감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로 프로그램 가지고 가는 세일즈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장으로 학교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와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며, 일방적 지원이 아닌 협업방식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청소년기관 이 역할(학교, 지자체, 교육청 등)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계의 휴먼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활용과 운영으로 학교, 지역사회 조직, 청소년기관 조직이 상호보완적 시스템으로 자원의 활용과 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이다. 청소년기관은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 전문성 갖추어 학교 및 지역 전문가로 교사나 학부모를 리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참여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주도성과 지역사회 연계정도 기준 4개 모형에 따르면 지역사회기관 중심, 청소년주도 모형이 전문성 갖춘 지역기관이 연계 담당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청소년주도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때 효과가 높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심을 갖고 관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역사회 연계로 자원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자기주도적 활동 참여가 전제되도록 해야 한다. 자기주도적 활동의 핵심은 지도원리, 문화적 자본의 격차 줄이는데 있다. 이는 활동내용, 강사의 질 차이 줄여주는 방안으로 저비용으로 가능하며, 문제 발견, 기획, 문제해결 위한 활동 방식으로 스스로 생각, 비판, 분석,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도자가 멘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현철 외, 2012).



출처: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II. p. 180.

[그림 6]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매트릭스

셋째,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협력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조직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책임진다는 자발적 참여와 관심, 책임의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여 단순 일터제공을 넘어 인재육성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해 가야 한다. 성공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공동발전 및 상생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지역 참여 주체자로 학부모의 참여 확대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터 체험제공 기관 발굴 및 기업윤리, 교육철학과 의지 갖춘 일터의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적 손실 고려한 선 공공자원, 후 민간자원 확대 등 다양한 자원 발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활동 성공사례 및 프로그램 모형화, 프로그램 매뉴얼 포맷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청소년예절교육, 체험기관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일례로 교육기부 인증명패, 칭찬릴레이, 공공기관 의무화, 기업세제 혜택, 시간기부 인정 등 사회적 합의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사항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현 (2013). 자유학기제와 청소년활동이 방향성 모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13-S05):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47-66.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연구보고 10-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II(12-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운영 사업지침. 민간행물.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I (11-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연수 결과보고서. 민간행물.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3).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사업 운영지원 최종실적보고서. 민간행물.

사례발표1



[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운영사례1]

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운영사례

허 은 숙

(경기도 신길중학교)

[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운영사례1]

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운영사례 :

신길중학교

허 은 숙 (경기도 신길중학교)

1.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운동인 자유학기제 운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처음 42개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이제 희망학교까지 800여 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학교를 포함하면 과반수이상의 학교들이 운영에 참여하거나 시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된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의 미래교육에 대한 희망의 뜻이 울랐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참여형으로의 수업 방법 개선과 평가 방법의 새로운 모색, 진로교육에 대한 방향 탐색,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활동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학기제는 42개 연구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그 공통된 활동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풀어나가는 교육과정!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는가를 알아보자.

2. 지역체험 활동 개요

1) 지역체험 활동의 종류

지역체험 활동의 가장 좋은 점은 다양성이다.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활동성과 다양성에 한계를 지닌 반면, 지역체험활동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방법을 제시한다. 42개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체험 활동의 전개 양상을 보면 ① 진로 직업 체험 활동 ② 봉사 활동 교육 ③ 환경 교육 ④ 실습 활동 ⑤ 스포츠 체험 활동 ⑥ 문화 예술 체험 활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의 연륜이 쌓이고 보다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2) 지역체험 활동 방법

지역체험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인프라 탐색과 섭외, 활동 계획 수립, 체험활동, 결과 평가 및 피드백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프라의 탐색과 섭외는 현재까지는 프로그램 담당교사의 몫이다.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 진로코디네이터가 배치되거나 학교단위의 인프라풀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프로그램 담당교사가 지역사회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체험 장소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지역체험 활동의 효과

지역체험 활동의 효과는 학습적인 측면보다 인성적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인 어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커지기 때문이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이해나 진로의 결정에 도움을 준다.
- ② 지역사회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생각을 갖는다.
- ③ 지역사회 단체(봉사단체, 어린이집, 노인회관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른 인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
- ④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다.
- ⑤ 기본교과활동의 경우 지역체험을 통해 학습의 깊이와 이해를 높일 수 있다.

3. 지역체험 활동 사례

사례 1	직업체험 활동
------	---------

1) 운영목적

- (1)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한다.
- (2)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흥미와 적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미래 진로선택의사 결정을 돕고,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한다.
- (3) 지역에서의 일터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관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 (4) 학부모의 진로 의식과 지도능력을 함양하여 학생의 진로지도를 돕고, 교육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운영 개요

- (1) 운영 형태: 현장직업체험형
- (2) 운영 시기: 1차 - 1차 지필고사 기간(2013. 10. 8 ~ 10. 11)
2차 - 2차 지필고사 기간(2013. 12. 10 ~ 12. 12)
- (3) 운영 대상: 1학년(310명)

3) 사전 준비

- (1) 진로체험 유형과 방침 협의
 - 5명 내외의 소규모 현장직업체험을 원칙으로 함
 - 1차 및 2차 지필고사 기간을 활용한 2회의 진로직업체험을 실시함
 - 계획 → 실행 → 체험결과 발표, 정리 및 공유 과정에 따라 운영함
 - 자유학기제학부모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함
- (2) 학부모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 학급별 4명(총 35명)의 지원단 구성
 -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위촉장 수여
 -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진로아카데미 및 학부모진로코치 온라인 연수 과정 이수
 - 학부모지원단활동을 위한 사전 연수: 직업체험활동 지도 매뉴얼 작성(부록3)
 - 학부모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직업체험 일터 발굴(총 30여개의 일터 체험)
- (3) 직업체험을 위한 담임교사 및 학생 사전 교육
 - 담임교사 연수 : 직업체험의 목적과 의의, 유형, 지도 방법
 -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한 학부모 안내
 - 학생 희망 일터 조사 및 매칭 및 학부모 진로코치 배치
 - 학생 사전 교육 : 직업체험이란? 일터 예절, 안전교육 등
 - 직업체험 활동 학생 워크북 제작(부록1)
- (4) 일터 멘토와의 협조 체제 구축
 - 자유학기제의 취지, 직업체험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안내 하고 공감대 형성

- 교육기부확인서를 받아 운영(부록 2)
- 학생직업체험 멘토 담당 배치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협조 의뢰
- 학부모진로코치 및 일터 체험 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

4) 세부 운영

(1) 소그룹별 현장직업체험(1차)

① 체험기간: 1차 지필고사 기간(2013. 10. 8 ~ 10. 11)

첫째날(10/8)	직업체험일터 확인, 체험 계획하기
둘째날(10/10)	직업 체험하기
셋째날(10/11)	직업체험 보고서 작성, 결과물 자료 제작

② 체험방식: 개별체험(부모 및 친지 직장체험) 및 그룹체험(5명 내외, 학부모지원단 발굴 일터 중심)

③ 체험방식별 참가 현황(1학년 전체 310명)

체험 방식	체험 장소	참가 인원
개별체험(학부모 또는 친지 일터)	안산소방서, 기아자동차 등 50여 일터	73명
그룹체험(학부모 지원단 중심 일터)	교육, 제조, 서비스 분야 등 30여 일터	237명

④ 세부 실행

- 학부모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일터를 발굴하여 교육기부를 받아 운영
- 개인별 희망 일터(학부모 및 친지 직장)체험, 또는 학부모 지원단을 중심으로 발굴된 일터를 중심으로 5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별 체험을 원칙으로 운영
- 학생의 희망을 받아 체험 일터를 매칭
- 진로코치로서의 원활한 활동이 되도록 활동 메뉴얼을 작성하여 연수하고, 수시 협의 및 피드백 과정을 운영

- 일터로부터 교육기부확인서를 받아 운영, 일터 멘토에게 직업체험의 취지와 방법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실 있는 운영
- 직업 체험 워크북을 제작하여, 체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도록 지도
- 계획 - 실행 - 결과 정리 및 발표하고 공유하는 단계에 따라 내실 있는 체험
- 1일터 당 1인 이상의 학부모 진로코치와 담임교사를 배치하여, 체험 전 과정에서 학생들의 체험 계획 및 결과물 제작을 돕고, 현장 체험을 인솔, 지도
- 일터 멘토에게 감사 엽서 쓰기 지도
- 체험 활동 결과를 전시판넬, UCC, PPT, 신문, 역할극 등의 형식으로 제작, 발표 및 공유하고 시상
- 체험 전과정에 충실히 참여하고, 성실한 보고서 및 소감을 작성한 학생 시상 (학년 인원의 5%)
- 평가: 담당 교사는 학생의 체험 일터를 확인하고, 학생이 체험에 참여하는 과정을 관찰 및 보고서와 소감문 등을 참고로 직업체험에서 학생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고, 학생의 성장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학생부 진로활동에 기록하며, 에듀팍에 연계 기록하도록 지도

⑤ 체험 일터 현황

분야	기관(상호)	체험 내용	주소	기관 연락처
애니메이션	부천만화 영상진흥원	* 캐릭터를 통해 배우는 만화100년 역사 * 전시해설가-도슨트 직업체험 등	부천시	032-310-3046
정치법률	국회	* 국회의사당,헌정기념관 관람 * 의정체험 * 간담회 등	서울	02-788-2114
복지	안산글로벌 다문화센터	* 다문화의 이해 * 음악회, 외국음식체험 * 바자회를 통한 외국인과의 만남	안산시	031-599-1770
	안산 평화의집	* 사회복지사 체험	안산시	031-417-7091
의료	안산의료 복지생활 협동조합	* 생활협동조합의 이해 * 의료 및 복지 분야 체험	안산시 상록구	031-401-2208

분야	기관(상호)	체험 내용	주소	기관 연락처
	서안산노인 전문병원	* 의료 및 복지 분야 체험	안산시 단원구	010-485-3377
	우리의원	* X선 촬영 관찰 및 사진판독 방법 * 진료 및 간호업무 간접 체험	안산시 단원구	031-401-0660
교육	대월 초등학교	* 줄넘기,배식, 독서지도등 보조 * 교사 수업 보조-늦은아이 돕기	안산시 단원구	031-508-6912
	아이림 어린이집	* 독서,놀이, 산책,중식 도우미 * 수업자료 만들기 보조 등	안산시 단원구	031-494-8042
	아이리베 어린이집	* 독서,놀이, 산책,중식 도우미 * 수업자료 만들기 보조 등	안산시 단원구	031-494-5191
	미술심리 상담연구소 "마음소리"	* 상담치료체험(청소년의 분노, 우울감소를 위한 집단 미술치료)	안산시 단원구	010-7549-369*
제조	(주)일광열연	* 일터견학 * 기계 제작되는 과정 체험	시흥시 정왕동	031-498-0844
	(주)케이테크 로버	* 일터견학,시제품제작 과정 관찰 및 제작체험, 불량품 검수 체험	안산시 단원구	031-495-4903
	(주)비락녹즙	* 녹즙의 종류별 효능,효과, 재료 * 생산유통과정,*종류별 포장 등 체험	안산시 단원구	031-494-9200
	네비매립카 오디오	* 세차 및 자동차 내,외부 장식방법 * 네비게이션,블랙박스 등 기능, 인터뷰	안산시 상록구	010-3389-699*
	(주)빅스테크	* LED, TV 등 부품제조 및 도금과정 견학, 제품검사과정 체험	안산시 단원구	010-3318-371*
	(주)D-S-CO N	* 베어링의 종류와 쓰임 * 유통현황 *도면보고 베어링 실습	안산시 상록구	031-492-2546
	"한아름" 떡집	* 떡의 제조과정 체험, 포장 판매, 시식, 인터뷰, 배달, 청소 등	안산시 단원구	031-520-5232
유통, 판매, 서비스	레인보우인 터테네셔널	* 휴대폰 관련 제품에 대한 이해 * 진열, 판매, 서비스 등 체험	안산시 단원구	010-9011-995*
	대우전자 A/S 센터	* AS센터의 목적과 하는일 * 작업실 견학 및 체험, 고객센터 체험	안산시 단원구	010-8816-107*
	K 슈퍼	* 제품진열,상품포장 및 판매, 고객센터 등 체험	안산시 단원구	010-3586-3615
	"꿈자"	* 수제햄버거 및 핫도그 만들어보기 * 고객접객서비스 등 체험	안산시 단원구	031-492-4600
서비스	"한결같은 회원"	* 화분의쓰임새,조경에대한 이해 * 분갈이, 물주기, 청소, 고객접객서비스 등	안산시 단원구	010-8757-965*

분야	기관(상호)	체험 내용	주소	기관 연락처
문화	안산 예술의전당	* 행사참여 및 견학 * 전시 및 체험 안내 진행보조 담당 * 무대 견학	안산시 단원구	031-481-4000
	YMCA 샛별도서관	* 도서대여 및 정리업무 * 동화책 읽어주기, * 도서분류법, 인터뷰 등	안산시 단원구	031-492-2707
농업	도일포도원	* 우리지역 재배농산물 * 포도, 고구마 등 수확 및 포장 체험	안산시 단원구	031-494-5549
체육	안산시 축구협회	* 축구 협회에서 하는 일 * 잔디 관리, 진로 조언 등	안산시 단원구	031-475-8844
	효천 무예 합기도	* 운동의 필요성, 호신술배우기 * 도장 업무 보조 및 청소 등	안산시 단원구	010-7141-929*
	노블스크린	* 고객센터업무, 업무보조, 청소 등	안산시 단원구	010-6205-052*
관리	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 전기, 기계, 초소, 경비, 관리 업무 등 체험	안산시 단원구	031-492-4904

사례 2	스포츠 문화 체험
------	-----------

1) 목 적

다양한 스포츠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건강과 활기찬 여가문화에 대한 경험을 체득하며, 건전한 스포츠문화에 대한 이해에 목적이 있다.

2) 세부 운영 계획

- (1) 시간: 2013학년도 2학기 매주 목요일 5, 6, 7교시(13:20 ~ 15:55)
- (2) 담당교사: 김○○
- (3) 구성: 1학년 희망학생 32명
- (4) 수업장소: 신길중학교 교내 및 교외 시설
- (5) 차시별 계획

주	활동구분	주요활동내용	교수학습
1주 (8. 22)		선택2수업 프로그램 설명 및 오리엔테이션 (각반 교실에서 진행)	

주	활동구분	주요활동내용	교수학습
2주 (8. 29)	스포츠와 친해지기	‘스포츠문화체험’ 오리엔테이션	협동학습
3주 (9. 5)	스포츠 클라이밍	‘스포츠클라이밍’ * 1차시: 안전장비, 신체균형의 원리 알기 * 2차시: 기본기술-잡기던기/수평이동, 수직이동 * 3차시: 톱로핑방식으로 오르기	수준별 학습
4주 (9. 12)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수준별 학습
5주 (9. 26)	볼링	‘제1회 꿈&끼 모듬대항 볼링대회’	협동학습
6주 (10. 17)	등산 & 미술제	‘등산, ‘단원미술제 관람’ * 노적봉 등산 * 단원미술제 관람	협동학습
7주 (10. 31)	오리엔티어링	‘오리엔티어링’(소재목: 친구사랑 내비게이션)	협동학습
8주 (11. 7)	마라톤 & 자전거	- ‘제1회 꿈 & 끼 단축마라톤 대회, ‘자전거라이딩’ * 단축마라톤대회 - 안산호수공원 4km 마라톤대회 실시(완주한 모든 학생에게 완주증 수여) * 자전거라이딩 - 자전거로 안산역까지 라이딩(교사가 제시한 자전거 지도나 자전거 내비게이션 참고)	협동학습
9주 (11. 14)	체육진로 직업탐색	‘체육진로직업탐색’	주제탐구 학습
10주 (11. 21)	양궁	‘양궁’ * 양궁실업팀에서 안산 연고지인 코오롱 선수들과의 만남	수준별 학습
11주 (11. 28)	방송댄스	‘방송댄스’	JIGSAW 모형
12주 (12. 5)	볼링	‘제2회 꿈&끼 모듬대항 볼링대회’ * 우리들의 볼링경기 예절규칙 세우기 * 모듬대항 볼링대회	협동학습
13주 (12. 19)	스포츠 전문인 만남	2, 3학년 2차 고사 기간 (1학년 선택2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첫째날: 진로체험 계획수립, 태릉선수촌 다규감상 후 감상문 작성 ▶둘째날: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태릉선수촌, 한국체육박물관 견학 ▶셋째날: 보고서 작성, 배구경기관람(러시안캐시MS한국전력) ‘스포츠평론가와의 만남’	
14주 (12. 26)	프로그램 활동정리	‘스포츠신길닷컴’ 제작	협동학습

사례 3	봉사체험(인성 함양)
------	-------------

1) 목 적

학생들이 소외계층의 어르신들과 어린 동생들에게 학습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봉사를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간접적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봉사의 참 뜻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세부 운영 계획

- (1) 시간: 2013학년도 2학기 매주 목요일 5,6,7교시(13:20~15:55)
- (2) 대상: 1학년 선택학생 35명
- (3) 담당교사: 최 ○
- (4) 활동장소: 신길중학교 교내(다솜반), 거모종합사회복지관, 비전하우스(장애인시설), 단원구노인복지관,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 (5) 차시별 계획

주	활동 내용	활동 장소	비고
1주(8. 22)	오리엔테이션 및 조편성/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1층 다솜반	네이버 밴드 가입
2주(8. 29) ~ 5주(9. 26)	각 기관별 활동에 따라 봉사활동 실시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외 4기관	
6주(10. 10)	2, 3학년 1차 고사 기간(1학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7주(10. 17) ~ 13주(12. 5)	각 기관별 활동에 따라 봉사활동 실시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외 4기관	
14주(12. 12)	2, 3학년 2차 고사 기간(1학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15주(12. 19)	각 기관별 활동에 따라 봉사활동 실시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외 4기관	
16주(12. 26)	한 학기 정리 소감문 작성 및 발표시간	1층 도움반	한 학기 활동정리 다과시간

1) 목 적

녹색생활을 자기 스스로 실천하고, 자신의 실천을 토대로 친구들과 함께 학교, 가정, 마을에서 녹색생활을 전파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다양한 기관, 활동, 사람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이후 성장과정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진로를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 세부 운영 계획

- (1) 운영시간: 2013년 2학기 매주 목요일 5,6,7교시(13:20~16:00/ 45분씩 3차시)
- (2) 대상: 1학년 선택학생 30명
- (3) 주관: 신길중학교,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안산녹색소비자연대)
- (4) 장소: 교내(엑셀런트실) 및 교외
- (5) 운영방식
 - ① 녹색학교만들기와 연관된 환경주제에 따른 [기초이론-학생실천과제찾기(견학/실험/창작/공작)-실천과제를 가지고 행동하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
 - ② 개인실천과제 숙지 후, 교내, 마을, 가정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 지도
 - ③ 한 학기 활동결과물 정리를 통해 이후 지속적으로 녹색학교만들기-녹색소비생활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6) 차시별 계획

주	월일	활동주제		활동장소	교사	비고
1	8월 22일	오리엔테이션			신길중	
5	9월 26일	견학	녹색여행 1 신재생에너지투어	시화호 조력 발전소	류보람 오효원 이영교	*시화호조력발전소

주	월일	활동주제		활동장소	교사	비고
9	11월 7일	마을 캠페인	녹색나눔캠페인 1 마을로 찾아 간 녹색학교 캠페인	인근 마을	류보람 오효원 이영교	*인근아파트를 방문하여 제작한 친환경비누를 배포하면서 '캠페인' 내용 전파
13	12월5일	1차시	클린투어 (안산소각로 견학 및 체험)	음식물처 리장 등	류보람 오효원 이영교	안산시 협조 (이종원, 481-3538)
		2차시				
		3차시				
14	12월19일	1차시	녹색학교활동 결과정리 - 모듬별	교내	류보람 오효원 이영교	*발표자료 준비 *초대장 제작
		2차시				
		3차시				
15	12월26일	1차시	녹색학교활동 결과 발표회- 모듬별	다함께		*초대
		2차시				
		3차시				

4. 문제점과 개선점

1) 문제점

지역체험활동은 교내에서만 이루어지던 교육활동에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초기 시행 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을 서술해 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1) 지역체험장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에서 지역체험장의 확보는 교사의 몫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과수업을 준비해야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체험학습의 일반화에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지역체험의 효율성을 높이는 첫째 조건이라 생각한다.
- (2) 멘토의 확보이다. 교사의 지역체험은 교사의 전문분야일 수도 있고(교과 관련 체험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험장을 잘 아는 멘토가 필요하다.

- (3) 안전사고의 문제이다. 체험학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다양하며 예측을 할 수 없다. 학생들의 행동 양식에 따라 사고의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의 학생 관리문제로 파악하고, 책임을 교사에게 묻고 있다. 어떻게 교사가 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하겠는가?
- (4) 체험학습 평가의 문제이다. 교과학습은 시험을 통해 학습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성과가 바로 나타난다. 그러나 체험학습은 정의적 부분이기에 평가가 어렵다. 영향 또한 나타나는 시기가 학생에 따라 다르다. 학습의 결과를 빨리 평가하고자 하는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들이 체험학습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2) 개선점

- (1) 지역체험학습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교육청별 1명정도의 체험학습 코디네이터를 두어 학교별 지역체험학습을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거리가 너무 멀다. 지역사회 속에 학교가 있지만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가 없다는 뜻이다. 지역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3)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교사는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발표2



[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운영사례2]

자유학기제 운영과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례

김 동 연

(서울시 잠실중학교)

[학교의 자유학기제 지역체험 운영사례2]
자유학기제 운영과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례 : 잠실중학교

김 동 연 (서울시 잠실중학교)

1. 2013학년도 잠실중학교 교육과정 중 지역사회 연계 사례

1)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운영

전체 동아리 60개 중 6개를 송파청소년 수련관과 연계 운영함. 강사 및 시설 이용

동아리명	일시(수업시수)	대상	연계기관 및 연계 내용
마술반	5월(15시간)	1, 2, 3학년 희망자	송파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강사
농구반			
탁구반			
요가반 A, B			
네일아트반			

2)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창의적 특색활동)은 한국문화예술원에서 강사를 지원 받아 본교에서 수업을 실시함. 강사가 프로그램 내용을 준비함.

자율활동 내용	일시(수업 시수)	대상	연계기관 및 내용
애니메이션	학급당 17주, 주당 1시간	3학년 12개반	한국문화예술진흥원-강사 및 프로그램
연극	학급당 17주, 주당 1시간	2학년 12개반	한국문화예술진흥원-강사 및 프로그램
테니스(스포츠)	학급당 34주, 주당 1시간	1학년 12개반	인근 테니스장-장소 및 강사

3)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12개의 학생선택프로그램을 외부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본교에서 실시함. 그 중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한 프로그램은 6개 프로그램임.

(1) 일시: 2013학년도 2학기 9월~12월 중 총 14주

(2) 대상: 1학년 학생 전체

선택프로그램	연계기관 및 내용
디자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사 및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사 및 프로그램
영화영상 제작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사 및 프로그램
모의창업	송파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및 강사
목공예	지역 공방, 강사 및 프로그램
드라마와 광고	한국언론재단, 강사 및 프로그램

4) 소규모 진로 체험 활동

총 64개의 직업체험 장소를 섭외하여 3~4명의 소그룹을 이룬 학생들이 희망 일터에서 직업체험을 실시하였음. 직업 체험 장소 섭외 과정과 직업 체험 장소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체험활동을 실시함.

(1) 일시: 2013년 10월 1일 9시~15시

(2) 연계 기관 및 내용

① 직업 체험 장소: 인근 64개 기관(소방서, 경찰서, 은행, 상점 등)

② 직업 체험 장소 섭외: 강동 상상 팡팡에서 54개 섭외, 본교에서 10개 섭외

(3) 대상 : 1학년 전체 학생 410명

(4) 방법: 학생 신청에 따라 3~4명 소규모 직업체험 실시

2.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문제점

(1) 창의적 체험활동의 형식적 운영

현재 학교에서 적용하는 2009개정교육과정에 의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준시수는 3년간 전체 수업시수 3,366시간의 9% 정도인 306시간이다. 그러나 스포츠 수업의 136시간 순증으로 실제로 학생들이 이수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는 542시간이다. 이는 주당 5.3시간이며 (학기당 17주), 학생들이 주5일 수업에서 거의 매일 1시간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어느 교과보다 많은 시수를 창의적 체험 활동에 배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교사들만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자율활동은 다시 특색활동, 적응활동, 행사, 자치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또 동아리 활동은 스포츠 동아리, 상설 동아리, 일반 동아리 등으로 세분화 된다. 문제는 이러한 세분화된 활동들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 결과 학생들은 각각의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창의적 체험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부족하다. 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공과목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소하며 깊은 지식을 가진 경우가 적다. 이로 인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계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셋째, 교원의 업무 과다로 인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교사들이 교과 수업, 학생들의 생활 지도, 학급 운영, 맡은 행정 업무 및 공문 처리, 각종 대회 및 행사 관리 등으로 사실은 교과 수업 준비에도 매우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 연구하고 내용을 개발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2)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의 연계 어려움

교사들에게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교육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디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한다. 이상적으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들이 함께 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센터들이 각각 별도의 시스템으로 계획을 세워 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로커리어 코치가 배치된 학교는 그나마 진로커리어코치의 도움을 받아 외부기관과 학교를 연결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 소개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매우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프로그램 제시 정도일 뿐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본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야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활동이고, 교사와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도자들이 함께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고 운영해야 그 교육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창의적 체험활동은 거의 학교에서 단독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이 단편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창의적 체험 활동의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만일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장의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교과 성적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만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교육을 계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2013학년도 잠실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잠실중학교는 인근 청소년 수련관과 거리가 멀어 수업 중 이동이 어렵다. 따라서 학교 내에 체육관과 강당이 없음에도 정해진 교과 시간 중에 이동하여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지난해에 송파 청소년 수련관에 의뢰하여 학생 선택프로그램인 '모의창업' 수업에 강사와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강사가 송파청소년 수련관 소속이었고 학교에서 강사에 대한 강사비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강사비를 지급하는 부분에서 학교와 수련관

측의 상호 의견 조정 부분이 필요했다. 결국 강사비는 잘 지급될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학교의 강사 담당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가 각각의 강사 관리와 관련하여 다시 늘어나는 결과가 생겼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자유학기제 및 외부 강사 관련 업무 담당자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강사 관리, 수업 관리, 강사 구인, 강사 연락 등), 이로 인해 그 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었다.

또한, 2013학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처음 실시되어 다양한 학생 요구 선택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강사를 구하는데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잘 되어있지 않아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지역사회 기관들은 나름대로의 스케줄에 맞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관련 기관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본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 못하여 교육적인 연계가 단순히 강사와 프로그램의 일방적인 제공 정도만 이루어지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보완적인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갑작스러운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학교와 사회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면도 있었다.

2) 개선점

앞으로 자유학기제의 동아리중점, 선택프로그램 중점 등 그 운영 모형에 따라 학교별로 지역사회 연계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학년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수요 조사 결과와 전국의 42개 연구학교 결과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학교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을 학교와 연계해 주는 과정이 뒤따라야한다.

현재 교육지원청 등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 관련하여 직업 체험을 위해 다양한 체험 장소를 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진로 커리어 코치들도 이러한 체험 장소를 섭외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에서 직업체험은 진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자율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지원청 등에서는 단순한 직업 체험 장소뿐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므로 학교의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는 12월~2월 중에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이 교육과정에 미리 포함되어야 이후 교육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에서도 일선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하여 교사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여 잠재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학교의 특성에 맞게 또한 학생 개개인에게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발표3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3]

청소년시설, 역할의 변화를 고민하다

이 은 주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
강남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3] 청소년시설, 역할의 변화를 고민하다

이 은 주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 강남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렇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행복이다.

행복은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현된다.

꿈은 자신을 탐색 할 수 있는 계기와 고민의 시간과 비례해서 선명해진다.

개개인은 저마다 타고난 재주도, 잠재력도 다르다.

그러기에 교육은 청소년의 재주와 잠재력을 계발, 성장시키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행복은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현된다.

꿈은 함께 할 때 힘을 갖는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교육은 청소년의 인성을 성장시키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행복은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현된다.

꿈은 마음껏 상상하고 상상을 현실로 구현시킬 때 심장을 뛰게 한다.

상상을 현실로, 다양함을 융합하고 재구성을 통해 창조로 이끄는 힘, 창의력이다.

그러기에 교육은 청소년의 창의력을 성장시키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2. 역삼청소년수련관, 역할의 변화를 고민하다.

그동안 청소년기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청소년체험활동을 진행해 왔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은 청소년들을 학교와 학원으로만 움직이게 만들었다.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청소년들을 찾아오기만 기다릴 수 없었고 찾아가야만 했다. 청소년들은 어디에 있을까? 학교! 학교였다.

그동안 학교의 폐쇄성으로 청소년기관이 청소년 체험활동 사업 시 학교와 연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2011년 전국 초중고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됨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 된, 그리고 다양한 교과와 연계 된 체험활동이 이루어져야 했고 학교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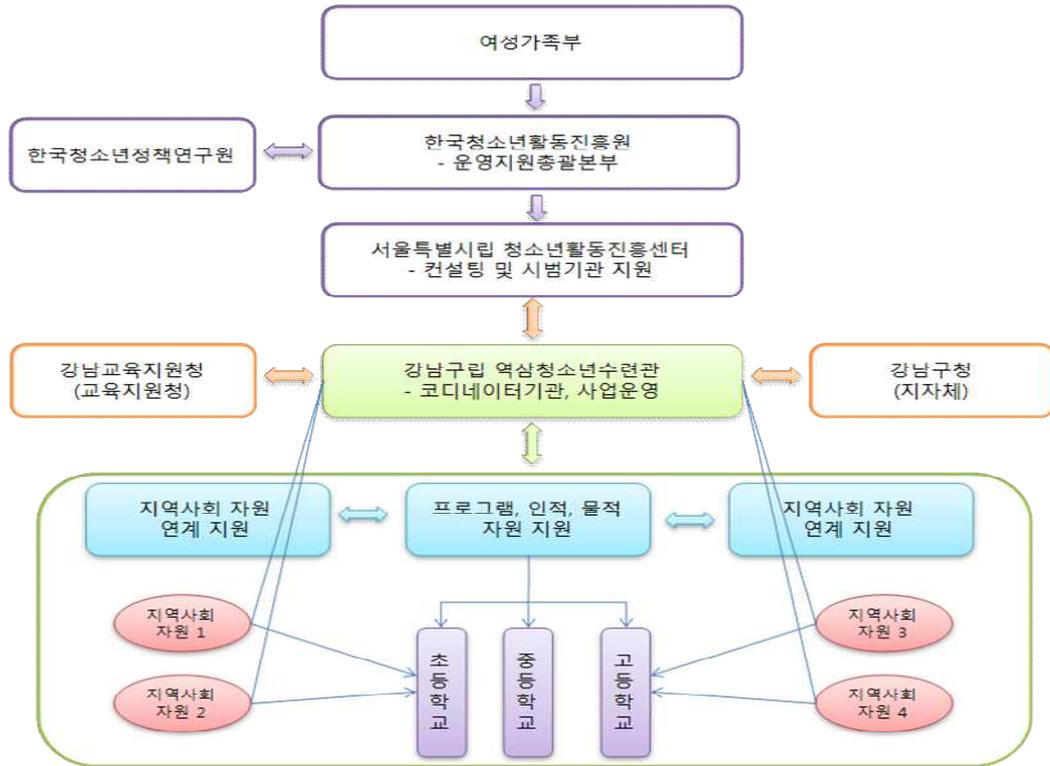
청소년 활동 기획, 개발, 운영 및 전문지도자, 공간자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던 청소년기관과 학교의 협력이 필요했다.

고민이 시작되었다. 청소년을 찾아 학교와의 연계를 생각했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연계의 물꼬가 생겼지만 이는 청소년기관의 목적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었으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할에도 많은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의 욕구와 변화를 반영하면서 청소년기관의 목적성을 살릴 수 있는 것, 고민의 실마리는 [코디네이터] 이 역할에서 풀리기 시작했다.

지역에서 하나의 청소년기관이 넘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영역별 전문성 또한 확보되어야 했다. 청소년기관 혼자서는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숲을 만들어 줄 수 없다.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면 가능하리라. 기존 청소년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그리고 기관들을 발굴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체험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한다면 청소년기관으로서도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정체성도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지원도 가능했다.

그래서 도전했고 시작되었다.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은 기존의 학교연계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2012년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2013년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업], 2014년 현재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를 통해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의 코디네이터기관으로 변화·성장하고 있다.

3.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자유학기제



[그림 1]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구축 모형

청소년기관에 근무하며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본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생각은, 두 가지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같다는 것이다. 단, 구성과 포커스가 조금은 다르게 표현되어졌을 뿐. 위 표는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업의 모형이지만 주최부서가 여성가족부가 아닌 교육부로 바뀐다면 자유학기제의 체험인프라 구축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업

1) 추진배경

(1) 지역적 특성

-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가 청소년들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성향을 높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성 결여를 보인다.
- 대학진학에 따른 학업성취 위주의 생활양식이 청소년들의 기초체력을 저하시키고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감정들이 폭력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 자녀에 대한 과잉개입이 비주체적이고 무기력하고 틀에 박힌 사고를 양성한다.
- 강남구청 강남지식(재능)기부제 연계를 통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프로그램리더로 활용한다.

(2) 추진방향

- 다양한 경험과 체험들이 창조적 생각을 이끌고 이는 청소년의 창의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이끈다.
- 지역사회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지속적인 사업연계운영으로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 이 사업은 학교에 개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학교의 교육과정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함께하는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청소년을 중심으로 수련관이 거점기관이 되어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
청소년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한다. 이에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성장에 함께 해야 한다.
- 이에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과 네트워크운영 활성화의 주력비율을 6:4로 운영한다.

2) 사업목적

(1) 목적 : 행복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 지원

(2) 세부목표

- 인, 의, 예, 지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긍정적이고 선한 인성을 가진 청소년으로의 육성

- 스포츠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기초체력을 향상하고 두뇌활성화를 유도하여 긍정적 신체에너지를 발산하는 청소년으로의 육성
- 문화재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역사와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문화재를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주체적 문화재지킴이 청소년으로서의 육성
- 생태텃밭을 통해 환경의 순환활동과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과 타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육성
-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기관으로서의 역량강화

3) 2012년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례

학교명	운영현황
도성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학년 및 총 인원: 4학년 6개반 240여 명 ○ 운영기간: 2012년 5월 ~ 2012년 12월 ○ 운영요일 및 시간: (목) 12시40분 ~ 14시10분 ○ 활동결과: 정서조절 4회 8시수 각 6개반 운영 대인관계 4회 8시수 각 6개반 운영 진로탐색 2회 4시수 각 6개반 운영 문화재지킴이 2회 6시수 각 6개반 운영 ○ 참여인원: 청소년 240명×4회×2개 영역=1,920명 청소년 240명×4회=960명 성인(교사6+강사6+상담사1+코디네이터1)×10회=140명 성인(교사6+강사6+코디네이터1)×2회=26명 / 총3,046명
도곡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학년 및 총 인원: 2학년 320여 명 ○ 운영기간: 2012년 3월 ~ 2012년 12월 ○ 운영요일 및 시간: (화) 13시30분~16시05분 / (목) 13시30분~15시10분 ○ 활동결과: 정서조절 8회 16시수 각 8개반 운영 스포츠활동 8회기 16시수 8개반 운영 동아리활동 9회기 27시수 10개 P 운영 봉사활동 1회 1시수 8개반 운영 ○ 참여인원: 청소년 320명×8회×2개 영역=5,120명 230명×4회=2,070명 / 320명×1회=320명 성인(교사8+강사12+상담사1+코디네이터1)×16회=352명 (교사8+강사10+실무자1)×9회=171명 (교사8명+강사8명)×1회=16명 / 총8,049명

학교명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학년 및 총 인원: 1학년 320여명 / 3학년 320여명 ○ 운영기간: 2012년 4월 ~ 2012년 07월 ○ 운영요일 및 시간: (화, 목) 08시 ~ 09시 ○ 활동결과: 매봉산 트레킹 1학년 13회, 3학년 14회 운영 ○ 참여인원: 청소년(320명×13회기)+(320명×14회기)=8,640명 성인(교사8명+강사8명)×13회+(교사8명+강사8명)×14회=224명 총 8,864명
진 선 여 자 고 등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학년 및 총 인원: 2학년 480여명 ○ 운영기간: 2012년 5월 ~ 2012년 12월 ○ 운영요일 및 시간 : 프로그램별, 반별 상이 ○ 활동결과: 6회기 12시수 : 정서조절 3회기 6시수 각 12개반 운영 경제특강 1회기 2시수 각 2개반 운영 성교육특강 1회기 2시수 각 12개반 운영 스태킹 1회기 2시수 각 12개반 운영 ○ 참여인원: 청소년(480명×6회기)=2,880명 성인(교사12명+강사12명+상담사1+코디네이터1명)×3회=78명 성인(교사12명+강사12명+코디네이터1명)×3회=75명 / 총3,033명

4) 2013년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례

(1) 개원초등학교: 국악활동, 진로탐색교육, 스포츠스태킹

학 교 명	개원초등학교	담당교사	○○○
영 역	동아리활동	분 야	국악(설장구 2개반, 사물 2개반)
목 적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기 위함		
대 상	5학년 1반~4반(반별 약28명)	기 간	2013년 4월 ~ 7월 총12회
연간시수	반별 24시수 / 총 96시수	운영시간	화요일 1~2교시 - 3반, 4반 화요일 3~4교시 - 1반, 2반
커리큘럼	회차별 상이(프로그램 지도안 참고)		
비품조사	장구 43개, 팽과리 9개, 팽과리채 2개, 북 10개, 징 1개, 징걸이 1개 (추가구비 요청 : 징 3개, 팽과리채 7개 - 학교)		
협력기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11-마호 임실필봉농악 서울전수관		
연 계	구룡경로당 결연 - 재능 나눔 공연활동 → 바른 인성과 노인 공경의식 함양		

학 교 명	개원초등학교	담당교사	○○○
영 역	진로활동	분 야	진로탐색
목 적	진로설정의 의미와 중요성 알기. 진로목표설정하기		
대 상	6학년 1반~4반 (반별 약40명)	기 간	2013년 5월 10일
연간시수	총 2시수	운영시간	5교시~6교시
커리큘럼	1차시~2차시 비전세우기, 패러다임 전환하기, 긍정적 마인드 기르기		
비품조사	해당사항 없음		
협력기관	역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팀 상담실 ○○○ 상담사 외 1분		

학 교 명	개원초등학교	담당교사	○○○
영 역	동아리활동	분 야	스포츠스태킹
목 적	개개인의 집중력과 순발력 향상 / 자신의 수준에 맞는 활동으로 성취감 뿐 아니라 모둠간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소통능력 강화		
대 상	5학년 1반 ~ 4반(반별 28명)	기 간	2013년 9월 ~ 10월
연간시수	반별 8시수 / 총 32시수	운영시간	화요일 1~2교시 - 3반, 4반 화요일 3~4교시 - 1반, 2반
커리큘럼	프로그램 별 개요서 참고		
비품조사	없음(강사준비)		
협력기관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 및 창의수업연구소 소장 ○○○ 외 강사		
활 용	2013년 개원초등학교 축제 스타킹 체험부스 운영		
연 계	구룡경로당 결연 - 재능 나눔 공연활동 → 1세대와 3세대간의 소통과 효를 통한 바른 인성과 노인공경 의식 함양 스타킹코치 양성(대학생, 교사) → 대학생 서포터즈 -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성장지원 → 교사연수연계 - 지역사회 교사 대상 특강,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방안 제시		

(2) 도성초등학교: 진로활동, 학교폭력예방(문화재지킴이, 스포츠스태킹)

학 교 명	도성초등학교	담당교사	○○○
영 역	진로활동	분 야	진로검사, 진로해석
목 적	진로 고민을 바탕으로 자기이해 / 진로 고민에 대한 방향성 제시		
대 상	6학년 1반~5반 (반별 약40명)	기 간	1차 2013년 6월 13일, 14일 2차 2013년 6월 20일, 21일
연간시수	반별 4시수 / 총 20시수	운영시간	목요일 1교시~2교시, 3교시~4교시 금요일 3교시~4교시
커리큘럼	1차시~2차시 - 관계형성 및 심리검사 3차시~4차시 - 심리검사 해석 및 유형별 모둠활동		
비품조사	해당사항 없음		
협력기관	역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팀 상담실 ○○○ 상담사 외 4분		
활 용	사후활동 - 6학년 반별 담임교사, 담당교사, 상담사가 모여 진로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유하고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모색		

학 교 명	도성초등학교	담당교사	○○○
영 역	학교폭력예방	분 야	강당강의
목 적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자기 역할 인식		
대 상	5학년 1반~6반 (반별 약40명) 6학년 1반~5반 (반별 약40명)	기 간	2013년 6월 11일
연간시수	학년별 2시수/ 총 4시수	운영시간	5학년 3교시~4교시 6학년 5교시~6교시
커리큘럼	1차시~2차시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 이해, 학교폭력 대처방안 교육		
비품조사	해당사항 없음		
협력기관	역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팀 상담실 ○○○ 상담사 외 1분		
활 용	'지킴이 서약문' 을 낭독하고 친구 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3) 영동중학교: 지렁이생태텃밭

학 교 명	영동중학교	담당교사	○○○
영 역	동아리활동	분 야	지렁이 생태텃밭 동아리
목 적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분변토를 만들어 퇴비를 다시 식물에게 돌려주는 생태계 순환의 일등공신 지렁이배양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물과 인간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지구만들기		
대 상	전학년 중 희망자 20명	기 간	2013년 3월 ~ 12월
연간시수	3시간 8회 / 총 24시수	운영시간	수요일 5교시~7교시
커리큘럼	회차별 상이(프로그램 지도안 참고)		
비품조사	사회과교실 4활용 학교교정 생태텃밭 3개 설치 / 사회과교실 지렁이상자 5개 설치		
협력기관	도시농업네트워크 외		
활 용	텃밭수확 작물을 통해 요리 수업활용, 점심식사 반찬 및 간식 활용		

(4) 진선여자중학교: 성교육, 인권교육

학 교 명	진선여자고등학교	담당교사	○○○
영 역	진로활동	분 야	성교육
목 적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강화 데이트 성폭력에 대해 알고 대처 강화		
대 상	2학년 12개반	기 간	2013년 4월 16일, 18일, 19일
연간시수	2시간 1회 / 총 2시수	운영시간	시간표별 상이
커리큘럼	프로그램 지도안 참고		
비품조사	해당사항 없음.		
협력기관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드림센터 내 성문화센터		

학 교 명	진선여자고등학교	담당교사	○○○
영 역	진로활동	분 야	인권(인권, 노동권, 참정권)
목 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 의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존감을 형성하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성장 지원		
대 상	2학년 12개반	기 간	2013년 5월 28일, 30일, 31일
연간시수	2시간 1회 / 총 2시수	운영시간	시간표별 상이
커리큘럼	프로그램 지도안 참고		
비품조사	해당사항 없음.		
협력기관	인권센터 들		

5.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문제점	개선방향
청소년기관 및 학교 간의 이해부족	교육정책, 학사일정, 학교운영에 대한 공부와 지속적인 대화
학교의 우위적이며 비협조적 마인드	공모사업을 통해 학교의 적극성 향상
학사일정 중 프로그램 적용의 어려움	차년도 학사일정 계획 시 함께 참여하여 학사일정 조정
학교장 및 일선교사의 사업이해 부족	사업의 성과를 통해 신뢰관계 구축
지역주민의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 프로그램 폐강, 공간사용 제한	청소년 교육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설명
기관운영의 수입 감소에 따른 어려움 프로그램 폐강, 공간사용 제한	청소년기관으로서의 목적성에 의의 직원모두 단합하여 수입 확보 노력
청소년 욕구에 대한 소극적 반영	학교선정 공모사업 시 청소년욕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제안

6. 사업추진에 따른 변화된 성과

1) 지역사회 학교의 인식변화

(1) 청소년체험활동에 대한 청소년기관의 전문성 인식

- 프로그램별 강사협의회
-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연계기관 발굴 및 네트워크 활동
- 지역사회 나눔활동으로의 승화

(2)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청소년기관의 의견 적극적 수렴

(3) 지역사회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의뢰

- 무료 프로그램 → 유료 프로그램 변화의 폭 확대

(4) 협약 된 프로그램 외 청소년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홍보협조

(5)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역할 및 인지도 상승

2)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주민들의 청소년체험활동 사업에 대한 인식향상

3) 학교와의 협력관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진로 분야 특화사업 추진(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례발표4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사례4]

청소년시설의 지역기반 진로활동

박 찬 열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 4] 청소년시설의 지역기반 진로활동

박 찬 열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 기존 진로활동의 한계 및 문제점¹⁾

1) 단회적이고 분절적인 진로활동

진로활동과 관련된 이전까지의 주된 방식은 진로에 대한 접근방법이 분절적이거나 단회적이었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수면위로 올라 온 것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본격적인 시행과 시기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전의 진로와 관련된 접근은 주로 상담분야에서의 진로와 관련된 검사 실시 및 해석, 집단상담의 한 영역으로서의 접근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 보니 상담분야의 영역에서 활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부족했고, 활동에서도 특정직업체험을 하거나 일회적 대학탐방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도인력에서도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인 단회적 강사 연계방식으로 진행되어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이외에도 상담과 활동분야가 서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한 선을 넘어 연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이 발생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진로활동이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접근방식과 영역 간 연계가 필요한 측면이 고려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 진로에 대한 본질적 접근보다는 특정 직업인이나 직업군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방식

이전의 진로활동은 특정 직업에 대해 체험의 기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해당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기술을 가르쳐주는 직무교육적 접근이라는 매우 편협적이고 제한된 수준의 진로활동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다. 이는 진로활동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일 뿐더러 자칫 진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도 있다. '진로교육은 직업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1) 본 원고는 필자가 2013.12월 “청소년진로활동프로그램 매뉴얼(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작에 참여할 당시 집필한 [지역 사회 기반 지원 시스템의 이해] 원고의 일부를 재정리 한 것임.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²⁾이라는 기준에서도 기존의 접근은 하위적 접근방식의 한 유형일 뿐이다. 또한 기존의 특정직업 체험중심의 접근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사회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직업군이나 직업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3)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을 기관이나 학교 등으로 한정시키는 경향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접근은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는 방식이거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있는 학교와 연계하는 것이었다.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평가에서도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평가기준은 몇 개의 기관 또는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거의 접근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네트워크의 대상과 한계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다. 지역기반 진로활동은 이러한 기존의 체제를 극복하고 확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기반 진로활동의 필요성

1)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청소년운동으로 확장

최근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중에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활동(activity)와 전자와 더불어 청소년들 위한 활동(movement), 즉 운동성의 개념까지 확대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때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진로활동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후자의 개념과 비슷하고 방법적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진로활동과 관련되어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주된 공약으로 제시한 자유학기제의 성패는 학교안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을 거두기 힘들고, 결국 정책의 성패는 지역사회 넓게는 사회전반에서의 공감대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다행인 건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사실이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과 전직이 많이 발생하면서 개인의 삶에서 진로와 관련된 고민과 생각들이 이전에 비해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 기인된 바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진로교육목표체계 및 성취기준.

지역기반 진로활동은 사회구성원의 전세대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기반위에 청소년진로활동은 추진동력이 발생하고, 나아가 진로활동의 추진과정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활동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진로활동을 통해서 긍정적, 구체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스웨덴의 교육 슬로건처럼,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는 우호적 청소년활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2) 한정된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활동모형으로서의 가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진로활동은 활동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모형이다. 시설운영과 관련된 최근의 흐름은 시설을 공간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사업추진의 구심점 혹은 중추기관으로서의 개념이 강하다. 또한, 회원중심의 단체 입장에서도 시설 및 공간의 인프라가 전문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부자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공간자원, 인적자원으로 나누어 자원의 활용 및 연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간자원

공간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점은 자신이 속해 있는 시설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해당 시설이 운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해당 시설이외의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기획자 혹은 운영자에게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과 마음이 활용할 수 있는 외부의 공간자원을 탐색하게 하는 시발점이다.

공간자원을 구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공간과 특수목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 공간은 별도의 장치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해당 공간에 내용을 통해서 공간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상태의 공간이다. 예를 들어 빈 강의실에서 기자체험을 한다면 기자체험실이 되고, 마술체험을 하면 마술체험실이 되는 방식이다. 공간이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활동의 내용이 공간을 규정짓게 하는 방식이다. 특수목적 공간이라 함은 특수목적이나 특수한 설비 등이 갖춰진 공간, 예를 들어 제과제빵실이나 영상스튜디오, 사진암실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은 공간이 내용을 규정짓게 되며 공간은 설치 당시의 목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2) 인적자원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논점은 연계를 추진하는 활동가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활동가가 해당 활동을 직접 운영하고 진행하는 경우와 활동기획에 무게를 두고 활동과정에서는 해당분야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적자원 활용측면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지역기반에서 인적자원의 활용은 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를 증진시킨다는 본질적인 면과 더불어 활동과정에서 연계된 인적자원이 향후 해당 활동의 결과에 따라서는 활동과 관련하여 우호세력이면서 좋은 홍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한정된 지역사회에서는 긍정적 경험을 한 인적자원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직업체험의 경우 지역사회의 일터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부모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연계된 경우 효과성과 활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동급생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면과 지역과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유대감이 형성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3) 지역자원중심은 지속가능한 진로탐색을 위한 방식

진로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몇몇 직업에 대한 체험위주로 끝나는 것은 진로활동에서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이는 진로활동이라기 보다는 단순 체험활동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이러한 진로에 대한 접근방식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활동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접근하고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늘 대면하고 접촉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진로활동이 이루어질 때 단순한 체험의 수준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진로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제과점에서 제과제빵사 직업체험을 한 청소년은 체험이후에도 해당 제과점을 방문하고 빵을 구입할 때마다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직업을 살펴볼 수 있을뿐더러 해당 일터 멘토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타 청소년보다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분야의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성의 다른 측면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속해있는 다양한 자원의 입장에서 지역기반 자원중심은 대상인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을

사회의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특정지역이 해당지역의 인재를 노력과 관심으로 키우게 되고 이는 자연적으로 해당 지역의 긍정적 성숙을 도모하게 되는 선순환적 구조를 갖추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로활동은 개인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며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커다란 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4) 진로활동으로 연계된 자원들을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연계하여 활동영역과 방식 다양화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과 단체, 지역주민 등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연계된 지역자원은 진로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의 활동이나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과 연계하여 연계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진로활동을 위해 일터를 개방해 준 지역신문사와 연계하여 청소년기자단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 경찰서, 지구대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예방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다. 이 연계과정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가령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진로를 통해서 연계된 자원의 정보를 인지했을 때 수련관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향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여타의 사업과 접점을 제시하고 사업의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파간다(propaganda)적 접근³⁾ 가능

지역기반 청소년진로활동은 지역 내 다양한 세대 및 구성원들의 도움과 참여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성인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청소년의 진로문제는 그들 자녀들의 진로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역으로 그들 자녀의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청소년활동가들은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주요한 자원이자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 및 이슈를 특정계층이 아닌 사회전반의 문제로 끌어올리고 이를 공동의 과제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가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슈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로활동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의 성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3) 어떠한 주장의 주장들을 대중에게 널리 설명하여 이해나 동의를 얻으려는 활동

3. 진로활동 지역사회 기반 지원시스템의 구축

지역사회 기반 지원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은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이 거주하거나 혹은 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성원의 특성에 대한 사전이해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조직화된 모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며 접촉하고 해당 지역의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또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은 또 다른 자원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자원을 연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절박함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일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청소년활동, 특히 진로활동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 어떠한 효과를 이끌어 내는지에 대해 청소년활동가 자신이 체감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업무 중에서 진로활동은 매우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활동 중에 하나이다. 진로활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며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인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지역자원의 연계활동은 관심 있게 다뤄야 할 분야이고 집중해야 할 업무이다. 때문에 자원연계를 통한 진로활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전반에 대한 준비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직업체험을 위한 지역일터 발굴하기

- 현장직업체험의 목적은 특정한 직업인이 되기 위한 직무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고 일터 멘토로부터 진로에 대한 생각과 삶의 모습을 관찰하게 하는 것임.
- 사전미팅을 통해 일터 멘토의 진로에 대한 생각과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 등이 어떠한지에 대해 비교적 편안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함.

- 일반적으로 지역일터의 경우 해당 직업에 대한 기술과 전문성은 비교적 높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청소년들을 일터체험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 일정별 간단한 업무매뉴얼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터의 현장에서 어떠한 체험과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전설명이 필요함.
- 일터 발굴과정에서 거절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접촉한 일터의 반응을 기술하고, 이후 추가적인 접촉을 실시할 것인지 접촉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함.
-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일터를 개방한 곳이 존재하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향후 연계의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멘토들의 입장에서는 교육기부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고, 현업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 일터현장 개방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람을 느꼈거나 긍정적 피드백이 발생한 경우들을 사례화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함. 업무추진의 초기과정에서는 작은 것일지라도 성공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 청소년시설에서는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성범죄경력조치를 현장일터체험활동의 내용상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움.
- 일터를 제공한 곳의 리스트관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일터제공 리스트가 유출되어 해당일터에서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가 될 정도로 일터체험요구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리스트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 지역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교육기부방식으로 기부함으로써 지역 구성원 간 공동체성을 견고히 하고, 지역공동체의 선순환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표 1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섭외 사례

구분	특 성
공공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접근이 쉬우나 관료적 분위기 • 실질적 직업체험보다는 라운딩과 기관소개에 그치는 경향 • 공적예산의 투입으로 운영되므로 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덜 민감 • 관리공단 등을 통한 산하기관과 연계 • 개별단위의 접근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선언적 그림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산하에 많은 기관이 있음(서대문의회, 자연사박물관, 형무소, 서대문체육문화회관 등). 공단의 지침으로 일터를 개방. 재개방을 요청하자 대부분 거절(기관 내 자체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더 맡기에 부담됨) • ‘착한공간나눔릴레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홍은동: 1동사무소, 도담도서관, 새마을금고)- 구청장의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 사업을 위해 자체공간을 의무개방하게 됨 (센터내 수용인원 120명, 외부공간 활용시 1회 수용인원 200~220명까지 가능) •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인적자원 보유 양성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진로센터 강사인력 수급문제 해결 (진로상담전문가, 진로체험강사진 확보)
민간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장은 학부모 진로코치단이 지역에 있는 커피숍을 소개한 곳으로 가게 대표가 평소 청소년과 교육에 관심이 많고 대표의 인품이 좋아 일터로 발굴함 (일터개방 및 센터교육, 진로박람회 부스 참여) • 사회적기업 에듀머니는 직업체험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청진기에 참여 • 정담은푸드마켓,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는 학교와의 연계 방법을 고민하던 중 센터 활동에 참여, 진로센터와 기관의 필요 일치(서울예술직업전문학교, 한국예술원 등) • 서대문사람들- 기자직업체험 강의, 청소년기자단,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계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의 교육적 접근이 어렵다. • 체험현장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 성범죄경력조회 등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일터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례발표5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5]

청소년시설의 담당자 관점의 자유학기제

김 기 흥
(송파청소년수련관)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5] 청소년시설 담당자 관점의 자유학기제

김 기 홍 (송파청소년수련관)

1. 자유학기제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해

중학생들의 진로탐색 활성화 등 학교교육의 새로운 바람이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불고 있다. 이에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방면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콘텐츠를 알릴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제공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각 청소년 수련시설의 학교연계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공통과제이다. 더불어 청소년수련시설의 학교연계 사업에서 자유학기제와 기존 학교연계의 차이점을 구분 짓는 것은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대응 사업운영에 있어 효과적이지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청소년시설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기존 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을 두어야 하는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사례를 들어 접근해보고자 한다.

1) 자유학기제와 학교연계 사업

(1) 학교연계 사업의 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학교연계사업은 사회복지의 학교사회사업(school social work)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상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사회 환경과의 조정을 도모하는 등 케이스워크를 중심으로 원조해 나가는 사회사업(이철수 외, 2009)을 청소년시설에서는 다양한 활동거리를 제공하여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교육적 성장을 이끌어 내하고자 하는 학교연계사업으로 전환·확장하게 되었다.

초기 학교연계사업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으로 학교연계 사업 담당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을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사회·체육사업(평생교육)확대와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 및 CA활동(동아리)의 활성화로 인해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성과 이를 활용한 강사매칭으로 학교연계사업의 다양성과 확대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학교연계사업이 청소년시설에 주는 이점은 첫째, 평일 오후 시간 청소년 이용률의 확보이다. 대상자나 수요자가 타 기관에 비해 고정적이지 않고 특정요일(주말)에 몰려 있는 점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큰 어려움 중 하나인데, 학교연계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로의 청소년의 유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야기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이 호소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대상자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를 빼 놓을 수가 없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콘텐츠 제공과 프로그램의 기획, 즉 준비단계에서 지역 내 각 기관을 연결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볼 때, 본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연계사업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수요자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고, 청소년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자유학기제의 등장

현재 서울시의 모든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 단계에 있는 본 자유학기제는 매년 바뀌고 시행되는 정책들과 같이 반강제적인 유행과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학교연계,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담당자로 크게 주목하는 것은 1) 자유학기제에 대한 각 학교의 운영방법이 교장의 재량에 따라 편성된다는 것 2) 본 제도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수업(콘텐츠)의 내용, 장소, 방법 등으로 제한적이다. 각 학교의 운영형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안, 이를 운영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이해가 쉽다.

2) 자유학기제 대응 지역 내 학교연계사례

(1) 잠실중학교(자유학기 시범학교)

표 1 잠실중학교 자유학기 연계 상황

기간	2013년도 2학기
프로그램	모의창업프로그램 진행
내용	자기탐색, 직업의 이해, 기업가체험, 창업의 이해
진행횟수	12차시 운영
활동장소	잠실중학교 교실
비고	학생들의 진로활동 동기부여에 중점

수련관은 잠실중학교와 함께 2013년도 2학기(9월 ~ 12월)에 총 12차시의 모의창업 수업을 진행하였다. 활동을 기획하면서 지역적 특성, 참가 청소년의 수업시간, 이동거리 및 예산을 고려했을 때, 지역 내의 기업 방문이나 산업현장을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때문에, 참가 청소년들의 진로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진로성숙도 향상을 목적으로 두어 커리큘럼이 구성되었다.

강사는 수련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여 검증받은 지역사회 내 진로코칭 모임인 “비저너리”를 통해 강사를 매칭하였고, 기획안 협의 후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표 2 잠실중학교 모의창업 프로그램 커리큘럼

차시	영역	주제	내용
1	자기탐색	나는 누구일까?	다양한 자기진단을 통해 나의 참모습 알아보기
2	직업의 이해	변화하는 직업세계	직업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유망직종 알아보기
3		브랜드 있는 직업 찾기	나만의 개인브랜드로 성공하기 위한 핵심키워드를 발견하고 만들어보기
4	기업가 체험	기업가 이야기	기업가의 정의, 특성, 고정관념, 기업가 정신 알아보기
5		사회적 기업	기업가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실제사례 알아보기
6		기업가 되보기	실제 기업을 탐색하고 벤치마킹해보기
7	창업의 이해	창업가 이야기	다양한 창업사례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구상하기

차시	영역	주제	내용
8		경제가 뭐예요	수요와 공급, 신용의 중요성, 시장경제체제 알아보기
9		시장조사 - 현장탐방	소비자와 시장 이해하고 분석하기
10		창업 구성하기	창업팀, 자금, 마케팅 전략의 이해와 구성하기
11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구성의 이해와 작성하기
12	마무리	평가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하기

기획 당초 12차시로 구성되어있었지만, 잠실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특성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2013년도 2학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었고, 프로그램 재구조화를 통해 6차시로 축소된 프로그램을 대상을 달리하여 2회 진행하였다.

(2) 풍납중학교(자유학기 희망학교)

표 3 풍납중학교 자유학기 대응 프로그램 진행 현황

기간	2014년 3월 ~ 10월
프로그램	스마트폰 APP개발, 바리스타, 최첨단 기술탐구, 애니메이션, 영화영상제작, 디자인
내용	해당 프로그램 별 수업 진행
진행횟수	총 7회 예정
활동장소	수련관, 학교, 학원

3)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중점요소

(1) 콘텐츠의 개발

현재 자유학기 운영에 있어 질적인 성장을 논의 할 수 있는 부분은 활동의 내용 즉, 콘텐츠에 있다고 판단한다. 더군다나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영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차별점은 '진로에 특성화 된 콘텐츠'가 바로 그것이라 판단한다. 자유학기제와 콘텐츠 기획은 참가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발성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에서 수업의 방향 설정이 학생들의 진로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획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수련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직업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진로성숙도를 이끄는 것보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진행해보자 했다. 수업의 주요아이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교 수업들의 교양과목들을 참고하였고, 올해 송파구 관내 학교에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4 2014년도 송파청소년수련관 자유학기제 대응 프로그램 목록

동아리명	내 용
모의창업	진로전반에 대한 이해교육과 창업을 위한 경제이해 및 아이템 선정 등의 현장 체험 및 교육
스마트폰 APP개발	스마트폰(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기획 및 프로그래밍
바리스타	커피바리스타의 교육 및 핸드드립 실습
광고기획	광고카피 및 광고 분석을 통한 표현력 및 감수성 체험활동
영화 영상 제작	영화의 분석과 직접 단편영화를 찍어보는 영상제작 체험 활동
디자인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의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들어보는 활동
무대연기	연기활동을 통해 자기표현력을 길러보는 체험활동
시나리오 작가	작가로써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구조 및 시나리오 작성 활동
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제작해보는 활동
베이킹	빵 만들기 교육 및 체험활동
분 장	특수분장 및 메이크업 교육 및 체험활동
문화예술 도슨트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와 도슨트의 역할 이해 및 활동
보컬트레이닝	보컬활동을 위한 독창 및 합창 활동
범죄심리와 분석	사회의 사건사고에 대한 분석과 심리탐구를 통해 범죄심리 분석과 예방
역사와 영화	영화를 통해 역사를 보는 활동으로 의복 및 역사적 사건을 알아보는 활동
그림으로 표현하기	간단하게 그림을 배워보는 체험으로 캐리커처나 풍경화의 스케치를 배우는 활동
건축학 알아보기	건축을 통해 자신의 공간을 생각해보고 건축물 디자인 및 감상 등의 체험을 진행
경제이해하기	중학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교육
현대최첨단 기술 탐구	현대의 최첨단 기술의 탐구와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는 활동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법 교육 및 관리 활동

동아리명	내 용
법과 사회	법이란 무엇인가 법에 대한 기초교육과 사건사고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토론
생명의 기원과 본질	생물학 관련 교육활동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대중의 심리와 미디어의 역할 탐구

(2) 지역인프라(자원) 구축 및 활용

지역인프라 활용은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자원의 활용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유학기제에 대응함에 있어 수련시설에서 인프라 확보는 크게 인적자원 구축과 지역자원 구축으로 나눌 수 있다.

인적자원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지도인력으로 강사풀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단 강사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모니터링이나 면담, 또는 경력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지역자원의 경우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활동장소를 의미하며, 고려해야 될 부분은 수용가능 인원과 사용시간과 비용이 있다.

사진수업을 예로 들어 지역자원을 구축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역사회의 사진관(스튜디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사진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모델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지역자원 구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대해서 청소년전문가로서 매우 환영한다. 다만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체계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요처와 공급처 그 사이를 잇는 허브역할로 세 부분으로 구성할 때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은 공급처와 허브역할에서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만 단순히 학교 측의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수련시설 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템 개발과 회차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활동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 물론 이 부분에서 학교와 전문 강사와 협의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수련관에서 활동에 대한 기획을 하고 이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 강사와 학교와의 피드백을 통해 구성해 나간다면 이는 수련관의 지적재산으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발표6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6]

“창의공작 프라자”와 함께 하는 자유학기제

김 지 숙

(부평구청청소년수련관)

[청소년시설의 자유학기제 학교연계 사례6] “창의공작 프라자”와 함께 하는 자유학기제

김 지 속 (부평구청소년수련관)

1. 사례소개

1) 추진배경

(1) “창공(창의공작 프라자)”이란

부평 생활속 창의공작 플라자(이하 창공)¹⁾은 기술친화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밖 생활공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 및 교육기관, 기업, 기술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와 지역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고, 사용하는 기수 공작을 습득하는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2012년 11월 9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부평구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이 운영기관이 되었으며, 2013년 4월 11일 정식 개소하였으며, 노작교육의 일환으로 우드피아, 테크피아, 썬크피아, 퓨즈피아로 테마별 수업이 진행되며, 지금까지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웠던 기계를 이용한 공작체험 및 다양한 창의공작 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분야를 융합을 통한 TEAMS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 “창공”과 자유학기제 연계

2013년부터 시범으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1) 창의공작 프라자(창공)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을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며,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도로써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속 창의공작플라자 “창공”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지어 2013년 “창공” 사업계획에 자유학기제를 포함시켜 다각적 방면에서 노작교육 체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2) 추진개요

(1)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역 내 자유학기제 연계 가능한 시범운영학교를 알아보던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에 위치한 부평동중학교로 남자중학교가 있어, 학교와 수련관의 1·2차 회의를 거쳐 2013년 8월 13일 부평구청소년수련관-부평동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협약일시 : 2013. 08. 13(화) 15:00~15:30
- 협약기관 : 부평구청소년수련관-부평동중학교
- 협약장소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층 썬크피아
- 참 석 자 : 수련관측- 관장, 담당팀장
학교측- 교장, 교감, 연구부장, 융합영재부장
- 협약내용 : 교육 프로그램 지원, 창의공작플라자 프로그램 지원
수련관 행사 적극 참여 및 맞춤형 학교교육 지원 등



[그림 1] 부평구청소년수련관-부평동중학교 자유학기제 업무협약

(2) 자유학기제 운영 및 프로그램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은 부평동중학교의 협업기관으로 교육부에서 지정된 정책추진학교 자유학기제 과제영역인 진로 및 인성교육을 위한 화요일 오후 프로그램 두근두근 미래열음분과 3개 영역의 프로그램(창의공작기계, 건축학개론, 난타타악과퍼포먼스)을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였다.

표 1 부평동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시간표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1	기본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도덕) 편성(19시간)				
2					
3					
4					
5	진로탐색 프로그램 (scep)	창의공작기계 건축학 개론 난타타악 창업가 정신	마음성찰 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14개 프로그램)
6					
7					
'자율과정' 과정 주당 14시간					

표 2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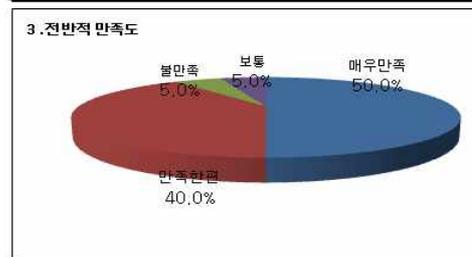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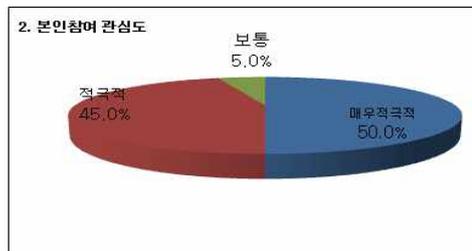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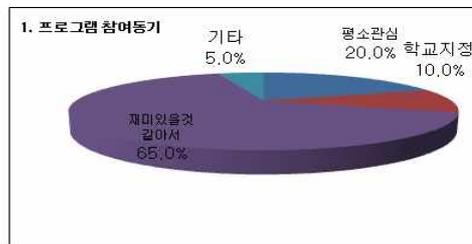
프로그램	강 사	내 용	관련직업	자료사진
창의공작 기 계	김지숙 (청소년지도사)	유니맷 공작기계를 이용한 창의 목공 직업체험과 인성함양활동	엔지니어, 발명가, 목수 등	
건축학 개 론	박소영 (건축학전공)	건축이란 무엇인가? 제도, 구성을 통한 내가 살고 싶은 집 만들기	건축가,디자이너, 조경기사, 인테리어전문가 등	
난 타 타악과 퍼포먼스	김명주 (난타전문강사)	난타 가락과 퍼포먼스를 접목한 실제 공연하기	공연기획자, 연출가, 안무가	

3) 추진성과

(1) 창의공작기계

- 운영기간 : 2013년 8월 27일(화) ~ 12월 17일(화) 총 12회차 운영
- 운영장소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층 창의공작플라자(테크피아)
- 참여인원 : 부평동중학교 1학년 239명(정원 20명)
- 참가비 : 무상교육지원(“창공” 정규과정으로 편성 운영)
- 운영내용 : 유니뎃을 이용한 창작물 만들기로 관련 직업체험하기
(이름표, 액자, 촛대, 학교현판, 피노키오, 동물모형 등)
- 평가결과 : 마지막 회차 시 참가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구분	계		
	명	비율(%)	
총인원	20		
설문응답 인원	20		
참여율	100		
1. 프로그램 참여동기	평소관심	4	20.0
	학교지정	2	10.0
	시간	0	0.0
	재미	13	65.0
	기타	1	5.0
	무응답	0	0.0
	계	20	100.0
2. 본인참여 관심도	매우적극적	10	50.0
	적극적	9	45.0
	보통	1	5.0
	소극적	0	0.0
	매우소극적	0	0.0
	무응답	0	0.0
	계	20	100.0
3. 전반적 만족도	매우만족	10	45.0
	만족한편	8	40.0
	보통	1	0.0
	불만족	1	5.0
	매우불만족	0	10.0
	무응답	0	0.0
	계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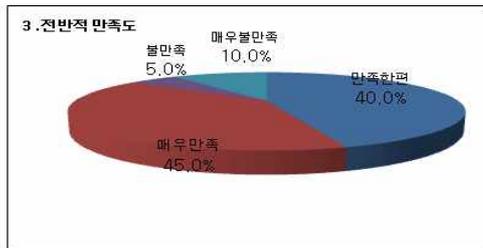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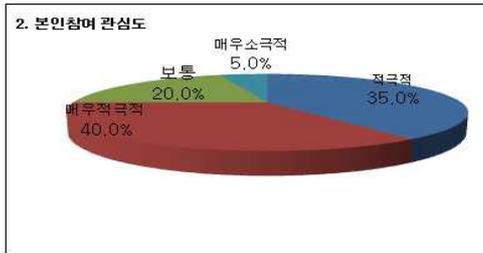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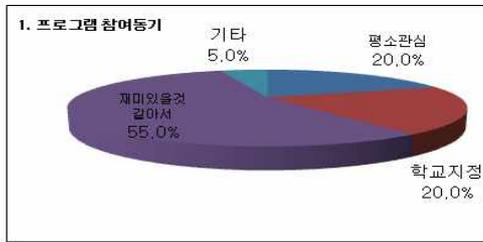
※ 프로그램 참가 동기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65%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참여도 및 관심도는 적극적 이상이 95%로 모두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만족도 또한 90% 이상으로 유니뎃이라는 기계와 소형공작기계들을 직접 사용하여 창작물을 만드는

데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며, 기타의견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기쁨,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음,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음 등이 있었음.

(2) 건축학개론

- 운영기간 : 2013년 8월 27일(화) ~ 12월 17일(화) 총 12회차 운영
- 운영장소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층 창의공작플라자(썩크피아)
- 참여인원 : 부평동중학교 1학년 240명(정원 20명)
- 참가비 : 무상교육지원(“창공”정규과정으로 편성 운영)
- 운영내용 : 건축에 대한 이론과 실체를 통한 내가 살고 싶은 집 만들기 완성하기
(미래 내가 살게 될 모델하우스 완성)
- 평가결과 : 마지막 회차시 참가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구분	계		
	명	비율(%)	
총인원	20		
설문응답 인원	20		
참여율	100		
1 프로그램 참여동기	평소관심	4	20.0
	학교지정	4	20.0
	시간	0	0.0
	재미	11	55.0
	기타	1	5.0
	무응답	0	0.0
	계	20	100.0
2 본인참여관심도	매우적극적	8	40.0
	적극적	7	35.0
	보통	4	20.0
	소극적	0	0.0
	매우소극적	1	5.0
	무응답	0	0.0
	계	20	100.0
3 만족도	매우만족	9	45.0
	만족한편	8	40.0
	보통	0	0.0
	불만족	1	5.0
	매우불만족	2	10.0
	무응답	0	0.0
	계	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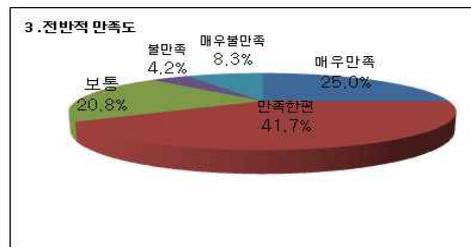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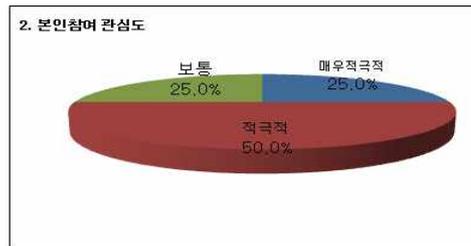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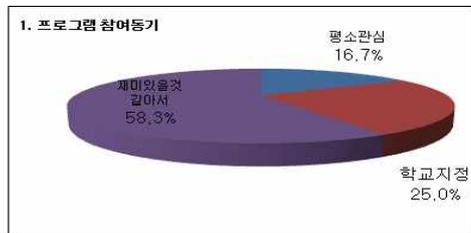
※ 프로그램 참여 동기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55%, 학교지정 20%, 평소관심 20% 등으로 대체적으로 흥미 위주의 선택이었고, 참여도 또한 적극적 이상이 75%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에서 매우불만족이 나온 건 학교지정으로 오게 된 친구들이므로 보여지

나 전반적인 만족 이상이 85% 매우 높은 결과가 나왔으며, 기타 의견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집 만들기가 너무 좋았음, 손재주가 늘었음,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음, 집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선생님과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었음 등.

(3) 난타 타악과 퍼포먼스

- 운영기간 : 2013년 8월 27일(화) ~ 12월 17일(화) 총 12회차 운영
- 운영장소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4층 공연장 및 실내체육관
- 참여인원 : 부평동중학교 1학년 294명(정원 25명)
- 참가비 : 무상교육지원(수련관 특성화교실 편성 운영)
- 운영내용 : 난타가락, 퍼포먼스, 장단익히기, 난타공연 완성 등
(2014년 12월 27일 부평동중 발표회 난타공연)
- 평가결과 : 마지막 회차시 참가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구분		계	
		명	비율(%)
총인원		24	
설문응답 인원		24	
참여율		100	
1. 프로그램 참여동기	평소관심	4	16.7
	학교지정	6	25.0
	시간적정	0	0.0
	재미	14	58.3
	기타	0	0.0
	무응답	0	0.0
계		24	100.0
2. 본인참여 관심도	매우적극적	6	25.0
	적극적	12	50.0
	보통	6	25.0
	소극적	0	0.0
	매우소극적	0	0.0
	무응답	0	0.0
계		24	100.0
3. 만족도	매우만족	6	25.0
	만족한편	10	41.7
	보통	5	20.8
	불만족	1	4.2
	매우불만족	2	8.3
	무응답	0	0.0
계		24	100.0



※ 참여 동기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58.3% 차지했으며, 본인참여도 및 관심도에서는 적극적인 50%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며, 만족도 또한 만족한편 41.7%, 매우만족

25% 등으로 기존에 접할 수 없었던 난타를 통해 청소년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 지며, 기타의견으로 재미있었음, 스트레스 해소, 난타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음 등이 있었음.

(4) 총 평

- 창공 프로그램(창의공작기계, 건축학개론)

기존에 체험하기 힘들었던, 보고, 만지고, 창작하는 창의공작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는 효과적인 계기가 되었음.

-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을 통한 향후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 제고
- 직접 창작물을 만들어 봄으로써 만족감과 성취감 고취를 통한 자아실현능력 개발에 도움
-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창의융합 프로그램과 기술교육의 현장체험 활성화에 기여
- 협약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형성 및 지역사회 청소년교육기관 역할 확대 및 자리매김
- 창공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소년수련관 홍보 및 청소년 이용활성화에 기여

- 특성화교실 프로그램(난타 타악과 퍼포먼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난타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공연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통가락과 퍼포먼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음악적 활동과 신체적 활동의 융합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신수양과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가 되었음
-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 및 사회성을 기르고 공연을 통한 만족감과 성취감 고취
- 전체적인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향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필요
- 자유학기제 연계를 통한 협약 학교와의 유대관계 증진 및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이용 활성화에 기여

※ 부평동중 자체 중간설문조결과도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고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87.6% 그저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12.4%에 달했다.

2. 문제점과 개선점

1) 자유학기제 운영의 문제점

(1) 지속적인 연계 부재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3년 2학기동안 자유학기제 연계를 실시해본 결과 참가해 본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으나, 학교 일정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상 공백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다(예: 진로DAY날로 인하여 10월은 부평구청소년수련관과 연계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함. 학교 행사 시 가장먼저 협업기관의 프로그램 배제 현상 우려).

(2) 재원부담 발생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비교적 청소년활동 사업들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 개인, 학교 등에서 프로그램 이용 시 무상교육지원이라 수혜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상태라 향후 유료화로 운영 되면 학교측에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예: 2012년 창의적 체험활동 시 전액 무료지원, 2013년부터는 소정의 참가비 납부, “창공” 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프로젝트사업으로 2015년까지 지원을 받아 무료는 진행되어지지만, 2016년 이후 청소년수련관 자립 프로그램으로 운영 시 프로그램 참가비가 수익자 부담이 될 예정).

(3) 협업기관 등 인프라의 과부하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3년도에는 2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4년도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발표 결과 32개 중학교로 확대 운영되어지며, 2016년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될 것이다. 이는 지역 및 유관 협업기관들의 부족 현상 및 업무 부하로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예: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자유학기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운영이 몇 개 학교로 국한될 것으로 사료되어짐).

(4) 수업을 위한 장소 이동 한계

부평동중학교와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의 거리는 1.68km로 청소년들의 도보 약 25분~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다. 화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청소년수련관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오는 방법은 천차만별로 도착시간이 상이하여 수업 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참가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수련관에 오기 때문에 수업진행에 차질 발생, 인솔교사 부재 및 학교교사의 학생 관리 소홀 발생).

2) 자유학기제 운영의 개선점

(1)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노력

학교 밖 자유학기제를 위한 이동수단, 자원마련, 협업기관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청소년 부담이라면 자유학기제를 달갑게 받아들이기란 힘들 것이다.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의 교육기부도 필요하지만 자유학기제를 위한 안정적 교육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적용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 보다는 인프라 활용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적당한 안배를 통한 효율적 운영의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성공 여부는 인프라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교육을 추구하는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체험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것이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자유학기제 운영 자료사진

• 2013. 8. 27(화) ~ 12. 17(화) 총 12회 운영: 창의공작기계반 자료사진



• 2013. 8. 27(화) ~ 12. 17(화) 총 12회 운영: 건축학개론반 자료사진



• 2013. 8. 27(화) ~ 12. 17(화) 총 12회 운영: 난타 타악과 포퍼먼스 자료사진



토론문



**자유학기제 운영과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례발표와 관련하여**

김 정 숙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자유학기제 운영과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례발표와 관련하여

김 정 속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1. 들어가는 말

지난해 정부는 중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현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다. 충분한 논의와 인프라 구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였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많은 활동에 참여해야했기에 많은 부담감을 호소하는 가운데서도, 자유학기제를 추진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교육적 의미와 보람을 발견하기도 했다.

2. 사례를 통해 본 학교와 사회의 연계

먼저 잠실중학교의 사례는 자유학기제를 받아들이면서 수업방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국어 2단위, 도덕, 사회에서 각각 1단위를 감축하여 선택프로그램 4단위를 개설하였다. 이 부분에서 학생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택프로그램을 구성한 후에 1학년 학급수만큼 12개 선택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학생들은 2학기에 총 4개의 선택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 시행과 별도로 1~3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전체를 살펴보면 60개의 동아리 중 6개의 동아리에 수련관의 강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신길중학교는 잠실중학교와는 다르게 자유학기제가 운영되었다. 수업방법개선 부분을 공통으로 생각하고 자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잠실중학교가 선택프로그램에 집중했다면, 신길중학교는 지역사회 체험활동에 집중하여 자유학기제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신길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체험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두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유학기제의 성공 여부는 각 학교가 학교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했느냐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상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수는 없다. 또한 현재 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렇게 실시하면 된다고 제시해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 각 학교에서는 처해있는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도출해내기 위해 전교사가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연구학교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한 많은 교사가 연구학교 추진에 참여하게 한 것이 가장 주요한 성공요인으로 보인다. 오히려 상부기관의 지침이 촘촘할수록 연구학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만족도도 높지 않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 시행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힘들지만, 이전의 제도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정기고사의 부담이 사라진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체험활동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학기제에서 지역사회 체험활동이 핵심영역은 아닐지라도 학생들에게 가장 강한 느낌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반영한 직업체험을 위한 작업장을 발굴하느라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학교는 주변에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체험장을 발굴해낼 수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어떤 체험장이라도 교육내용을 내실있게 구성하면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생의 적성과 꿈에 꼭 부합하지 않는 체험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교육적으로 충실하면 학생들은 그 속에서 배울 것이다. 또한 직업이라는 것을 유형화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직업만을 체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한다고 할 때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계획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사람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같이 체험활동하는 동료들을 배치하고 체험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 등 개인에 따라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의 유형이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희망하는 직업 유형이 아니라고 해도 체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각 학생들에게 적합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서서히 발견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체험활동이 단순히 학생의 꿈과 끼를 발견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인성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제언

자유학기제를 직접 실시한 학교의 경험에 비추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더욱 많이 부여해주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학교에서 성공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내고 실행해낼 수 있다.
- 학교에서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 자유학기제 시행의 대강의 로드맵을 완성해서 전체 교사가 자유학기제 시행에 공감하고 동참하게 해야 한다. 해당 학년이 아니어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도울 수 있다. 무엇을 해서 힘든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더 교사를 힘들게 한다.
- 학교와 지역사회 단체와의 프로그램 협의는 학기 시작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개설해줄 수 있는지를 학교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기관에서 진행할 수 없다면 수요조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업무담당자의 일상 업무로 인정하고, 기관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 업무담당자에게 추가적으로 얹혀지는 업무가 되어서는 지속적인 연계가 불가능할 것이다.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학교와 연계하는 것이 결국은 사업의 지평을 넓혀 발전하는 계기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 현재는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선택프로그램, 다른 학년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학교교육과정 속에 지역사회에서의 체험활동이 정착되려면 프로젝트학습주간 같은 것을 계획하여 정규 수업시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것으로 제언을 마치며, 자유학기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학교선생님들과 청소년 교육 관련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rranged in a pattern that is partially obscured by a decorative white scalloped border at the bottom of the page.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 과제

인 쇄 2014년 4월 21일

발 행 2014년 4월 23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동진문화사 전화 02)2269-4785 대표 이병무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